

ChosunBiz

[줌인] 美 시장에 넘치는 현금, 得일까 毒일까?

기사입력 2020-06-29 11:32

연준, 이달 중순까지 개별 회사채 5000억 매입
3월 '제로 금리' 천명하고 2022년까지 유지키로
"현금 넘치는데 소비는 냉각...돈 풀기 능사 아냐"



제롬 하이든 파월 미 연준 의장/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차 시장 유동성 지원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돈 풀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계 중앙은행도 일찍이 '현금 방어막'을 쳤다. 시장에 넘치는 현금이 소비 진작과 물가 상승을 유발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거란 시나리오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 시각) 연준이 시장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4억2800만달러(약 5136억 원) 규모의 개별 회사채를 매입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6일부터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SMCCF)'를 통해 개별 회사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세컨더리 마켓은 유통시장을 뜻한다. 연준은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PMCCF)'도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준이 현재까지 세컨더리 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한 기업은 총 44개다. 여기에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유틸리티·에너지 관련 회사를 비롯해 AT&T, 월마트, 필립모리스, 유나이티드 헬스, 코카콜라, 펩시 등 유명 대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연준이 당초 '매입 적격 기업'으로 지정한 회사채는 790여개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연준이 조만간 더 많은 회사채를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연준이 53억달러(6조3600억 원)에 달하는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도 매입했다고 CNBC는 보도했다.

연준의 '돈 풀기'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내리고, 2022년말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외에 유럽·일본 중앙은행들도 파격적 금리인하, 자산매입 등으로 빠르게 현금을 공급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실제 주요 경제국 경기지수가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유동성 함정 우려...'돈 풀기' 능사 아니다" 신중론도 속속

그러나 일각에선 '유동성 함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에 돈은 넘치는 반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2차 확산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현지 시각)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5월 개인 저축률은 23.2%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59년 이후 17.3%가 최고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4월에는 32.2%까지 올랐었다. 지난 21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4월 미국 은행의 예금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달러(약 2425조 원)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은행 예금은 전 달 대비 8650억달러 늘었다. CNBC는 "보통때 같으면 1년 간의 예금 총액과 같은 수준"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 직후 전 세계가 쏟아낸 재정·통화정책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할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26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세계 경제가 워낙 큰 폭으로 뒷걸음질 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푸는 것의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완전한 회복책으로 보서는 결코 안된다"고 했다.

손 로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연준의 제로금리와 자금 풀기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면서도 "경제활동 봉쇄 조치가 완전 해제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대면활동과 서비스 수요가 줄어 전 세계 일자리의 30%가량이 몰려 있는 서비스업이 타격받고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의 세계 경제가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같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현금을 푸는 것과 별개로

정교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이달초 정치·경제 전문칼럼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드' 기고문에서 "엄청난 양의 돈이 풀리고 있지만, 기대만큼 소비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각국이 그동안 정교하지 못했던 부양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chosunbiz.com]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비즈 받아보기]

[조선비즈 바로가기]

chosunbiz.com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366&aid=0000546812>

중앙SUNDAY

스티글리츠 “예비타이어 없는 차처럼 회복력 잃은 경제...급반등 어렵다”

기사입력 2020-06-27 00:22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컨퍼런스
 “코로나 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
 부채 구조조정 못하면 더 큰 위기
 국가 간 협력으로 돌파구 찾아야”

펠프스 “경제 활력 잃고 혁신 타격
 사회 소요 이어져 국가 붕괴될 수도
 저·중소득층 상실감 해소책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사회적 격리, 도시 봉쇄, 세계 경제 위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로 몰아넣고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세계 경제 구조까지 확 달라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풀 꺾이나 싶었던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이런 지구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국내외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나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적 접근까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많은 것이 이미 바뀌었거나 바뀌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혼돈의 세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극복 해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등을 국내외 석학들에게 들어봤다.

“코로나19가 가져올 경기 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이다. 대공황에서 회복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신 같은 특허풀 국제 공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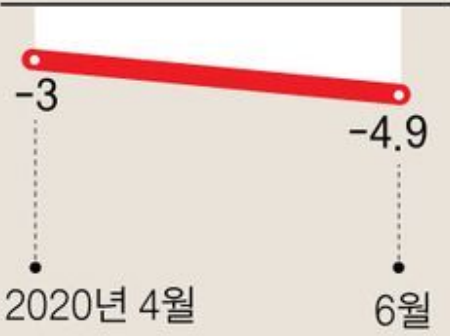
조셉 스티글리츠

코로나19 여파로 사전 녹화로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는 우리가 만든 경제가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가 없을 땐 잘 작동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 회복력을 잃는다”며 코로나19로 침체한 세계 경제가 급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V자’형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많았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CNN, 폭스뉴스 등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V자형의 급속한 회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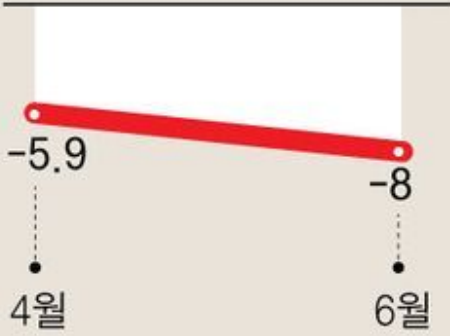
그러나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로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이루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홉 번째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기조연설자로 나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2006년) 에드먼드 펄프스(Edmund Phelps)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도 “공공부채가 증가하면 자본과 부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가 다른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국가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4.9% 전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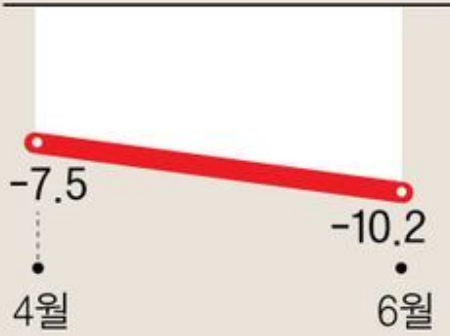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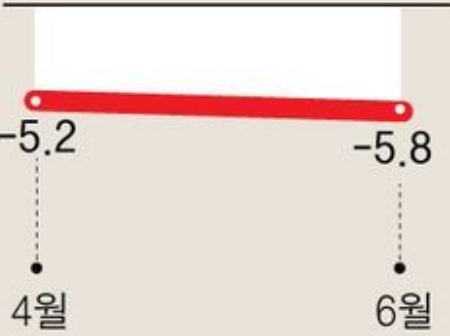
미국



유로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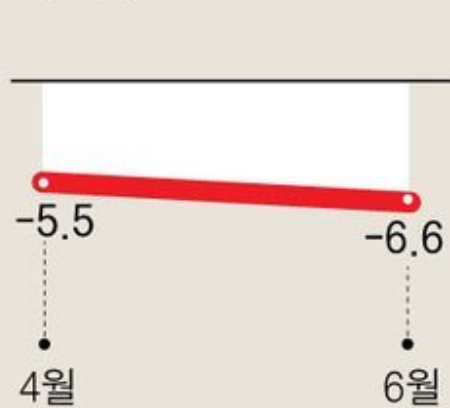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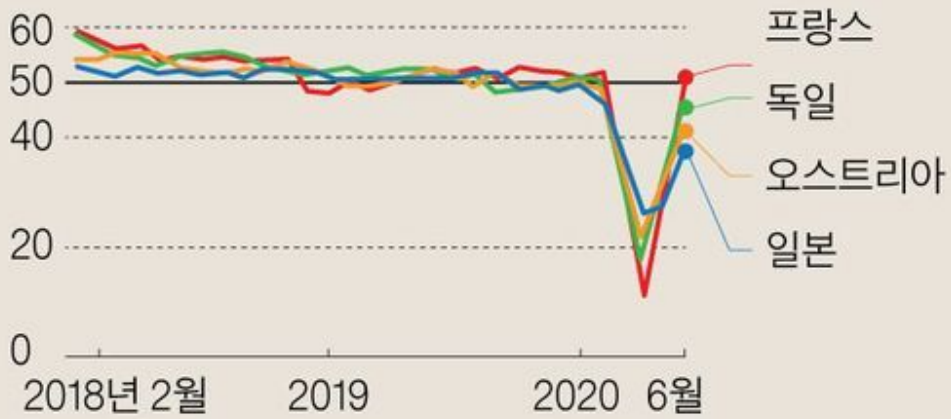
단위: %

2020년 2021년



세계 경제 'V자 반등' 하나?

6월 복합 구매관리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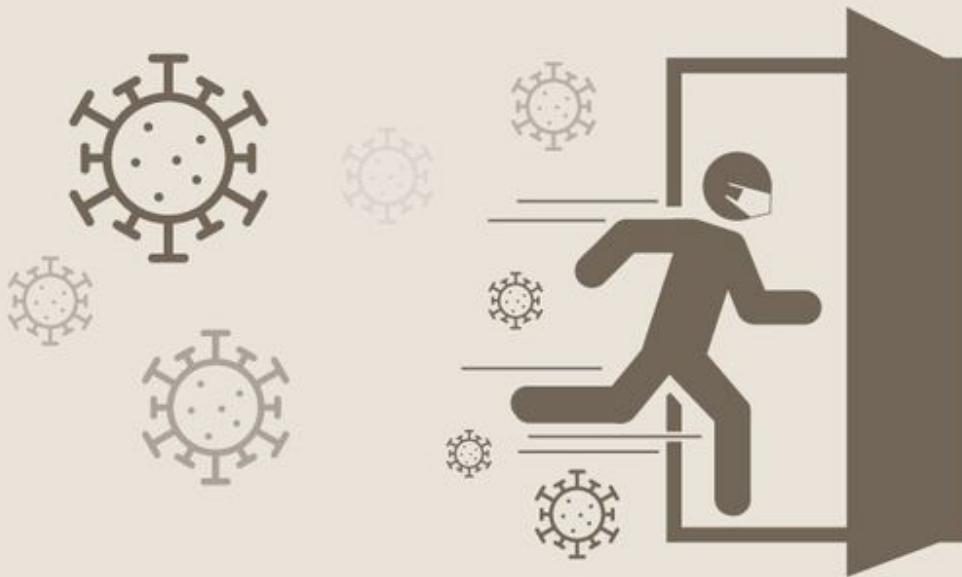


상승 반전한 미국 소매판매

전월 대비 증감률, 단위:%



자료:국제통화기금·기획재정부·미 상무부·IHS마켓·각 기관



미중 무역갈등, 경제 회복 큰 변수



에드먼드 펠프스

펠프스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활력을 잃었고, 혁신도 큰 타격을 받았다"며 "자기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면 국가 붕괴나 사회 소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두 석학은 각기 다른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리는 하나의 지구에 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이 다르더라도 국가 간 협력해야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예방을 위해선 지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백신 관련 '특허 풀(pool)'을 만드는 등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펠프스 교수는 사람마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세기 미국의 젊은이들은 열정이 넘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이것이 미국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업의 이익만 증가하고 저·중 소득층은 임금 상승 혜택을 받지 못해 상실감이 크다"며 "코로나19 자체도 문제지만, 정부가 이 같은 상실감에 대처해야 현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의 사회로 박태호 원장, 최병일 교수, 성태윤 교수(왼쪽부터)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탈(脫) 세계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화가 불가피하고 (세계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세계화로부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량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프스 교수는 코로나19로 세계가 기후변화 문제를 돌아보는 데 소홀해졌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아직도 10년, 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추정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미·중 무역 갈등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세계 경제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패널로 나온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중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하더라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장)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든,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던 미·중 무역 갈등이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려면 노동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로치(Shaun Roache)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대면활동이 크게 줄면서 전 세계에서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의 충격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완화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조셉 스티글리츠

- ▶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경제학 박사
- ▶ 프린스턴대·옥스퍼드대·스탠퍼드대 교수

▶ 노벨경제학상 수상(2001년)

에드먼드 펠프스

- ▶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 ▶ 미국 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 자문
- ▶ 노벨경제학상 수상(2006년)

황정일·김나윤 기자 obidius@joongang.co.kr

- ▶ 중앙SUNDAY [홈페이지]
- ▶ [네이버포스트] [PDF열람]

©중앙SUNDAY(<https://news.joins.com/sunday>) and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353&aid=0000037227>

한겨레

스티글리츠·라인하트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화 뚜렷한 퇴조”

기사입력 2020-06-26 12:20 최종수정 2020-06-26 18:46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주최 국제콘퍼런스 열려

우리가 만든 경제 회복력 없어
‘예비 타이어 없는 자동차’ 신세

1인당 GDP 회복 4~6년 걸릴 것
평등·친환경·지식 경제 만들어야



그래픽_고윤결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카먼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화가 뚜렷한 퇴조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석학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포럼에서 온라인 기초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1세기 초에는 세계화가 불가피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량이 총생산 대비 줄어들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런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우리가 만든 경제가 ‘예비 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작동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 회복력이 없다”고 말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온라인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10년이란 세월이 걸린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경제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새 경제체제의 비전과 관련해 "단순히 이전 경제로의 원상복귀가 아니라 보다 평등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인하트 부총재도 코로나19 사태에 미-중 간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까지 겹쳐 세계화가 퇴조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는 방역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과 글로벌 자본이동 위축, 개발도상국의 높은 변동성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경기회복 시점과 관련해 "반등과 회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로 인해 경기지표가 호조를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미국은 5년 정도 걸렸으나 일부 유럽국가들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의 경우 4~6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저소득층과 영세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역진적"이라며 "소득불평등 문제가 여러 국가에서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금융시장 주목하는 ESG, '코로나 수혜테마' 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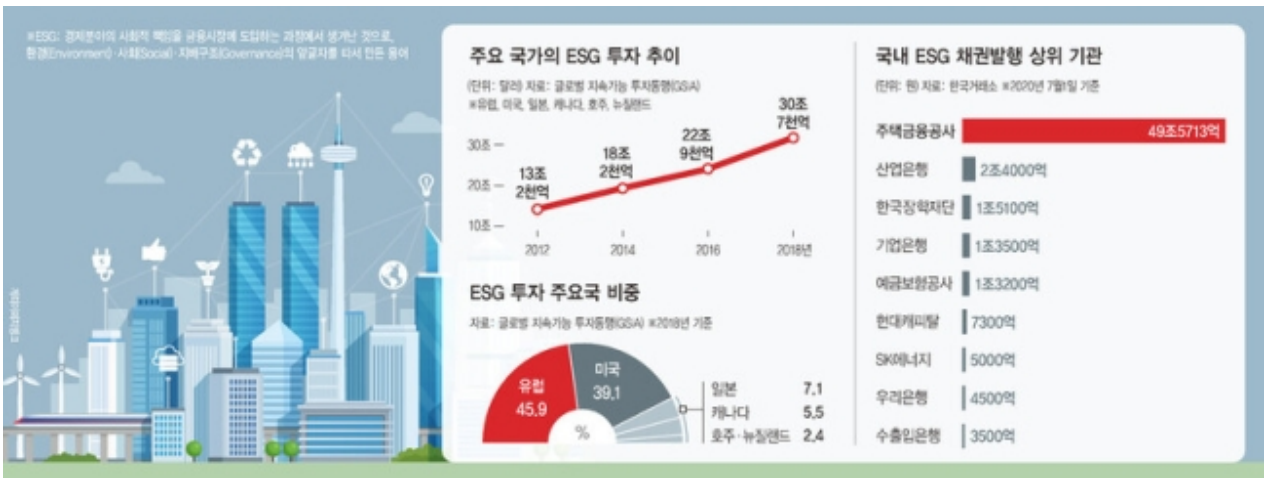
기사입력 2020-07-01 18:50 최종수정 2020-07-01 20:44

자리 잡아가는 '지속가능투자'

코로나로 기업 지속가능성 더 관심
환경·사회적 사업에 큰손 주목 늘어

유럽·미·일 등서 발달한 ESG 시장
투자·채권 발행 규모 매년 증가세

ESG 원화 채권 발행잔액 60조
그린본드 이어 소셜본드 각광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투자와 채권 발행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에 스지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기업, 금융회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투자자 등 경제주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스지는 경제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유엔이 2006년 사회적 책임투자원칙(PRI)을 제정하면서 성장의 토대가 마련됐다. 유엔은 기후변화 대응과 빈곤·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의 장기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속가능금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끌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이를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패러다임 변화' 포럼에서도 국제금융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단체인 국제금융협회(IIF)가 이에스지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 협회의 소니아 기브스 전무는 연설에서 부실한 의료시스템 개선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속가능금융에서 기후변화 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이슈와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이 중요한 의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스지 관련 시장은 유럽에서 시작돼 현재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동맹(GSIA) 자료를 보면, 이들 국가의 투자규모는 2014년 18조3천억달러에서 2016년 22조9천억달러, 2018년 30조7천억달러로 증가 추세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에스지 채권 시장의 경우 지난해 발행 규모가 4665억달러로 한해 전보다 78%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발행잔액은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스지 채권은 발행자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환경, 사회적 사업, 지속가능성 증진 사업에 한정해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특수목적 채권을 통칭한다. 사용처에 따라 그린본드, 소셜본드, 지속가능채권으로 나뉜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이에스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 양상이다. 국내의 이에스지 관련 투자는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 연기금이 주도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이들 연기금의 관련 투자는 약 27조원 수준이며, 이중 국민연금이 26조7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이에스지 채권 발행은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화채권 발행으로 시작됐다. 수출입은행이 2013년 외화 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2018년부터 발행 기관이 늘기 시작했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원화 채권 발행은 2018년 5월 산업은행이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해에는 원화 이에스지 채권 발행이 29조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1일 기준으로 발행잔액이 59조9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택저당증권(MBS)을 소셜본드로 발행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발행분 49조57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발행액이 10조원을 넘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부터 모든 주택저당증권을 주거복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소셜본드 방식으로 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스지 채권 발행이 주로 그린본드에 집중됐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셜본드 발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흐름이다. 발행기관도 공기업 중심에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코로나19 금융지원 목적으로 4천억원(만기 1년) 규모의 소셜본드를 발행했다. 발행 금리는 AAA은행채 평균 금리(1.22%) 대비 7bp(1bp=0.01%) 낮은 1.15%로 결정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국민은행은 전했다. 다만,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조달금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이에스지 채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어 조달금리 측면에서도 유리한데 국내에서는 금리가 일반채권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스지 채권 발행 인프라도 점차 확충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5일 관련 채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 포털인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sribond.krx.co.kr)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는 발행기관들의 발행 내역을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 3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로는 처음으로 이에스지 채권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발행 전 평가(사전평가)에서는 프로젝트의 적정성과 조달자금에 대한 운영·관리 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며, 발행 후 평가(사후평가)에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조달자금을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해당 내용을 적시에 공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 ▶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8&aid=0002503362>

문화일보

금융위원장 "9월에 대출 만기 재연장 얘기 안 하게 되길"

기사입력 2020-06-26 12:21

은성수 위원장, 상황 악화 시에는 대출 만기연장 시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 등의 대출 만기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9월이 돼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는데 할 만큼 했다고 (정책 연장을) 안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대출 만기연장 시한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연 국제 콘퍼런스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초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을 9월로 할 때 3달 정도만 연장하면 된다고 했지만 대책을 과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 6개월 연장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9월 30일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이 종료되는 9월 이후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커진 상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전 금융권이 6~12개월 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대책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플랜A는 코로나19가 제대로 종식됐을 때, 플랜B는 제대로 끝나지 않을 때, 플랜C는 현재보다 악화했을 때 등으로 나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 등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기초연설에서도 "금융정책을 만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했는데 이미 6월 말이 됐다"며 "다시 연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3개월 내 잘 끝나 사태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대응 정책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목적이 주목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동력 유지와 성장의 버팀목"이라며 "코로나19와의 공생 시대에 금융의 적극적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유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문화닷컴 바로가기 | 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World Bank dismisses BOK's optimism

2020-06-26 : 16:22



Bank of Korea Governor Lee Ju-yeol, left, and World Bank chief economist Carmen Reinhart / Korea Times file

By Park Jae-hyuk

The World Bank seemingly agrees with recent warning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sent to the Bank of Korea (BOK) over the central bank's "quite optimistic" position on the country's growth outlook.

Carmen Reinhart, the chief economist at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said in a pre-recorded speech for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IGE) conference held Friday that it could take up to six years for the world economy to regain per capita income it had before the COVID-19 pandemic.

"One distinction that I'd like to make is — let's not confuse rebound with recovery," she said. "For the U.S. in 2008 and 2009, it took five years to get back the pre-crisis per capital income, and for Europe, it took much longer."

The economist claimed it was difficult to expect a swift (or V-shaped) recovery from the current crisis, taking a cautious assessment toward global economic forecasts.

The remarks were seen as a contrast to those of BOK Governor Lee Ju-yeol, who considered the IMF's latest adjustment of the country's growth outlook as "immode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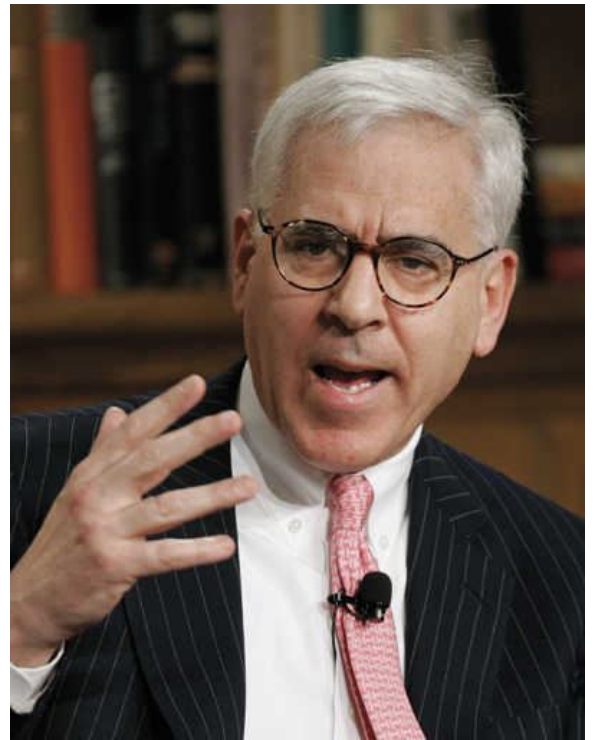
The IMF revised Korea's economic outlook to a 2.1 percent contraction Wednesday up from its 1.2 percent forecast in April. However, Lee maintained the bank's earlier forecast of a 0.2 percent contraction was appropriate, saying the IMF seemed to have been a bit "immoderate," when it adjusted Korea's economic outlook to reflect the impact of the worse-than-expected global economic outlook.

During the conference, Carlyle Group co-founder David Rubenstein also gave a warning to investors who were hoping to interpret the recent stock market rally as the signal of an

economic recovery.

The billionaire businessman attributed the rally to the extreme popularity of tech giant stocks, such as Microsoft, Amazon, Facebook and Google, which does not reflect the ongoing recession in the restaurant, travel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He forecast the economy will “never return” to its previous state — even if it rebounds — because businesses have already begun recognizing that they do not need the same number of employees as before, after they began conducting work-from-home experiments.



Carlyle Group co-founder David Rubenstei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hairman Eun Sung-soo delivers a speech at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international conference at Lotte Hotel in Seoul, Friday. / Yonhap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hairman Eun Sung-soo call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minimize the fallout from the COVID-19 pandemic.

“In 2008, the financial crisis was constrained effectively through brisk international cooperation,” he said at the conference. “At this moment of another global financial crisis caused by COVID-19, it's too bad there's hardly any eff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financial regulator also hinted that the government may further extend the maturity of debts provided to companies affected by the coronavirus, if it fails to contain the virus by September.

Jointly hosted by the IGE and Hana Bank, the annual event offered a venue for economic experts, entrepreneurs and government officials from around the world to discuss the economic paradigm shifts in a post-COVID-19 world and the future of online and offline finance.

Those who participated online included Nobel laureates Robert Merton, Joseph Stiglitz and Edmund Phelps; and global financial leaders, such as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CEO Tim Adams and MSCI Chairman Henry Fernandez.

매일경제

루벤스타인 "세계 경제 4분기부터 불황 탈출...테크 기업이 반등 이끌 것"

기사입력 2020-06-26 14:45

루벤스타인 칼라일 회장, 세계경제研-하나銀 세미나서 밝혀
"금융시장 10년전과 달리 제 기능
자금 조달 쉽고 금융기관도 견고
글로벌 증시도 회복 기대 반영"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반등과 회복 혼동해선 안 돼...
향후 6년간 부침 겪을 것" 신중론

스티글리츠·펠프스 등 경제 석학
공공부채 증가와 국제공조 부족 우려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회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이날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조셉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 등 해외 연사들은 녹화와 온라인 생중계 연결을 통해 행사에 참여했다. [사진 = 유준호 기자]

"미국 정부의 유동성을 공급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가 괜찮아지고 있다. 2분기에는 극심한 경기 불황을 겪겠지만 4분기에는 불황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이 전례 없는 유동성과 재정 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고, 구글과 아마존 등 테크 기업들이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그는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대공황 상황에서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현재 미국에서는 시장에서 자금 조달도 쉽고, 금융기관도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증시가 훨씬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 왔는데, 이는 경기 불황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다만 루벤스타인 회장은 산업과 기업, 일자리, 소득 측면에서 불평등 심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그는 "IT 기업과 보건·의료 등은 수혜를 보겠지만 요식업 등은 사업을 재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코로나는 중소기업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니고, 이전과 같은 소득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 역시 코로나 분화구(Corona Crater) 속에 빨려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경기 반등'과 '경기 회복'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경계론도 제기됐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는 "2차 유행이 없다는 전제하에 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향후 기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회복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라인하트 수석부총재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경기 회복까지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업 활동이 고용률 회복, 경제 지표 호조로 연결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완전히 회복이라고 볼 것인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5년이 지난 뒤에야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고, 유럽은 이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최악은 지났다는 긍정 심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계경제는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라인하트 수석부총재는 공공부채와 가계부채를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S&P와 피치, 무디스가 경기 전망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무 주체의 건전성 때문"이라며 "미국만 해도 사상 최대 정부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등 각국의 정부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고, 가계의 재무 건전성도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0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 역시 공공부채에 대한 우려

를 보였다. 그는 "공공부채 증가는 저축과 투자 위축으로 연결된다"며 "아울러 공공부채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막대한 부채로 정부가 다른 문제로 소홀할 수 있는데, 기후 변화 문제에 소홀하거나 사회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탈세계화 가속과 국제 공조의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방역이 제대로 되어 하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회복세가 전제 돼야 한다"며 "미중 갈등 등 국가간 갈등이 있지만 구멍 보트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탄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함께 노를 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설계를 주문하기도 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리가 만들어온 경제는 예비 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다를 것이 없다. 문제 없는 잘 작동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회복력이 없다"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회복력을 위해 단기적인 희생을 치렀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라고 평가했다.

[유준호 기자]

- ▶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 ▶ '매일경제' 바로가기 ▶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9&aid=0004603424>

한국경제

[사설] 코로나궤 장기침체, "혁신과 구조개혁만이 살 길이다"

기사입력 2020-06-29 00:08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돌파는 중국이 작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79일 만이다. 북반구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코로나 확산이 주춤할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바이러스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린다.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미국에선 2차 봉쇄를 준비 중이다.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에도 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연 국제 콘퍼런스에서 카르멘 라인히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는 "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 직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4~5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등 전문가들은 코로나 직후 세계가 쏟아낸 재정·통화정책 덕분에 최악의 상황에 빠져드는 것은 일단 막았지만 'V자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혁신과 구조개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려면 조지프 슈페터가 강조한 혁신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통화정책 등 임시 처방만으론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구조개혁의 근원적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신기술·신상품이 쏟아져 나온 때가 구조적 혁신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 위기에 따른 구조전환기야말로 혁신의 골든타임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초기 코로나 확산 때 효율적 통제로 'K방역'이란 모범사례를 만들긴 했지만 경제 위기 극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단기적인 위기 극복이 어렵다면 우리도 이번 기회를 구조개혁의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질병인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신사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위기 장기화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 한경닷컴 바로가기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지금 세계경제는 예비 타이어 없는 車"...석학들의 경고

기사입력 2020-06-26 17:42 최종수정 2020-06-27 00:21

세계경제연구원 국제 콘퍼런스

글로벌 석학들

"소득수준 회복에 4~5년 걸려"

'코로나 수렁' 장기화 경고

펠프스 "숨페터식 혁신해야"

스티글리츠 "국제공조 절실"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26일 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에서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머튼 미국 MIT 석좌교수가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화상 강연을 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26일 "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4~5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하트 수석부총재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연 국제 콘퍼런스에 온라인으로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회복을 주도했지만 코

로나19 위기에는 신흥국과 선진국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며 "금융위기 때보다 더 깊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경제 석학·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깊은 충격을 받은 세계 경제가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공동창업자 겸 회장은 "저소득층과 여행·요식업체 등은 코로나19로 생긴 '수렁(crater)'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소득·계층 불평등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문제를 극복하려면 조지프 슐페터가 강조한 혁신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며 "슐페터적 혁신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기술(IT)기업의 독과점 양상이 굳어지는 반면 신규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코로나19로 교육 및 구조개혁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끝내려면 모든 국가가 한꺼번에 질병을 통제하고 관련 지식을 세계가 공유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국제 콘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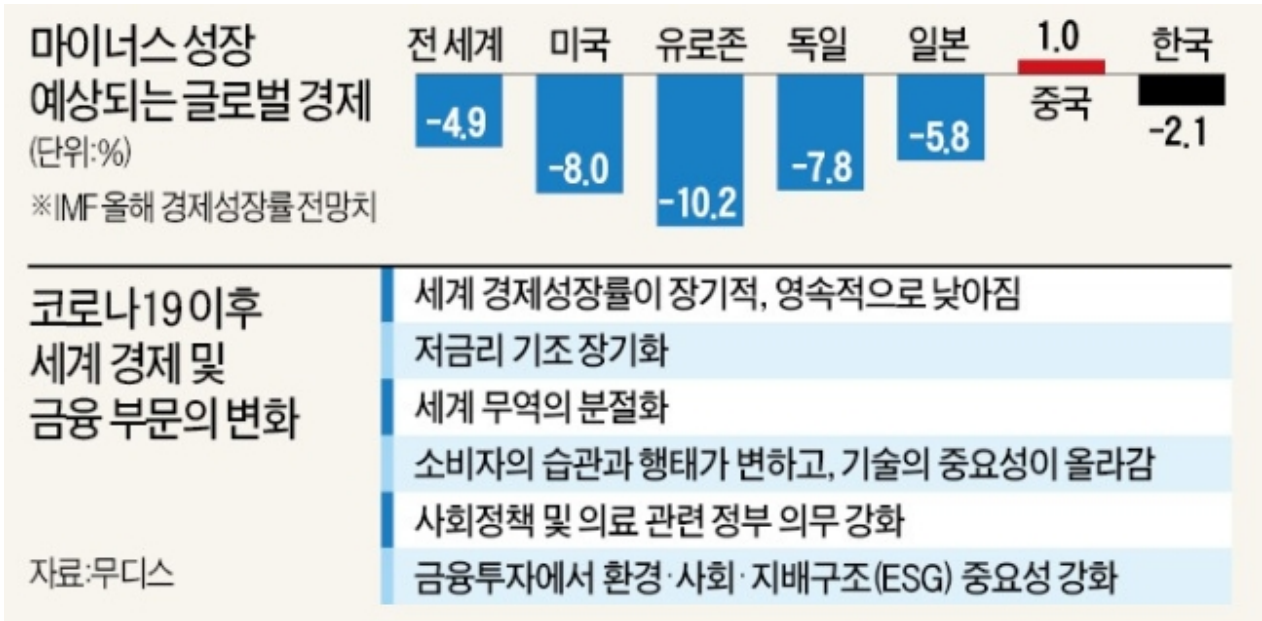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세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탄력적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겁니다."(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글로벌 경제는 '예비 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원활하게 작동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력이 부족합니다."(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26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연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 석학·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V자' 반등 곡선을 그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석좌교수와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를 비롯해 라인하트 수석부총재,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공동 설립자 겸 공동 회

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진단했다.



“V자 회복 어려워”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직후 전 세계가 쏟아낸 재정·통화정책 덕분에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드는 것은 일단 막았다고 분석했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내렸고 막대한 자금을 풀었다”며 “올해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이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기록하겠지만 Fed의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공행진하는 증시도 이런 막대한 유동성의 힘”이라며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존슨앤드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등에서 내년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불거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라인하트 수석부총재는 “세계 경제가 워낙 큰 폭으로 뒷걸음질쳤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완전한 회복으로 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교역량이 코로나19 직전부터 줄었다”며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 동시에 신흥국이 채무지급 불능 상태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손 로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만큼 경제 활동 봉쇄 조치가 완전 해제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대면활동과 서비스 수요가 줄어 전 세계 일자리의 30%가량이 몰려 있는 서비스업이 타격받고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극복, 국제 공조 절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구명보트에 싫어하는 사람과 탕더라도 같이 노를 저어야만 안전지대에 닿을 수 있다”며 “지

구에 사는 모두가 공통의 문제를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19 백신 개발을 위해 각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백신 공동 풀'을 조성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며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들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채권국들이 채무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슈페터가 강조했던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펄프스 교수는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과 신기술이 쏟아지고 미국의 성장도 견인했다"며 "슈페터적 혁신'을 바탕으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김대훈/황정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 **한경닷컴 바로가기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5&aid=0004368855>

한국경제

"기관의 투자 패러다임 바뀐다...비대면 기술·ESG 비중 높일 것"

기사입력 2020-06-26 17:37 최종수정 2020-06-27 01:04

연기금·국부펀드 세션

초저금리 고착화에 수익성 타격 감염병 대응분야 투자 영역 부상

"위기 국면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기회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해 투자하는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26일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콘퍼런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돈을 풀어 제로(0) 내지 마이너스 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연기금이 초과 수익을 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채권 분야에선 매입 대상 국채를 확대하고 모기지담보부증권(MBS) 같은 구조화 채권과 회사채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비대면 등 신기술 및 신산업 투자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헤니 샌더 파이낸셜타임스(FT) 국제금융담당 수석칼럼니스트 사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연기금 및 국부펀드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한 세션도 마련됐다. 이 세션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미국 MIT 석좌교수, 안 본부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김수이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연기금·국부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패러다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머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투자 자산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과거와 달리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보다 자국 우선 주의가 대두하면서 글로벌 투자에도 전에 없던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최 사장은 "이전까진 ESG 중 환경 측면이 중시됐다면 코로나19 위기 이후로는 실업 증가와 양극화 심화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 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부문도 주된 투자 영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침체 극복 과정에서 연기금 및 국부펀드가 지나치게 '정치 수단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는 "각국 정부는 연기금이나 국부펀드가 정부의 재정 전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익을 위한 투자를 자유롭게 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 **한경닷컴 바로가기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5&aid=0004368842>



기재차관 "코로나 이후 유동성 급증 부작용, K-뉴딜로 극복"

기사입력 2020-06-26 14:42



김용범 차관(서울=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TF 6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6.26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중 정부 지출 등으로 유동성이 급증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한국형 뉴딜(K-뉴딜)'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IGE)과 하나은행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강연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기존 양적 완화와 저금리, 부채증가 등의 부작용이 남아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재앙이 닥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부채, 자산가치 상승, 부실기업으로의 유동성 공급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유동성 공급 부작용 극복 방안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된 한국형 뉴딜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 "단기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사회 구조의 국가 대전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정지출과 생산성 증대 타겟팅으로 유동성 급증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각국이 '포용적 회복력(inclusive resilience)' 경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보험 확대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전직과 재교육 등을 용이하게 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 ▶ [팩트체크] 한국은행이 5만원권 발행 중단?
- ▶ 제보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706124>



스티글리츠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

기사입력 2020-06-26 11:40

"코로나19 계기로 단기수익보다 장기 안목 중시하게 될 것"
 WB 수석부총재 "탄탄한 교역과 금융네트워크 회복에 회의적"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콘퍼런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가 만든 경제가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다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작동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 회복력이 없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보다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투자자의 목소리에 힘을 더 실어주는 등 단기수익보다 장기 안목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어 "각국은 이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공동으로, 협력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특히 코로나19 종식과 예방을 위해서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기에 백신 관련 특허 풀을 만드는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가져올 경기 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이다. 우리는 대공황에서 회복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대공황 당시에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못 했지만, 이번에는 공조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문제임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하버드대 석좌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자본 흐름이 거의 붕괴했고 교역량도 큰 폭으로 위축돼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전 수준의 탄탄한 교역과 금융 네트워크가 회복될지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라인하트 부총재는 "현재 각국 중앙은행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1인당 소득은 대단히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이 실직 등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영세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문제가 나타났을 때 많은 국가가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보호무역주의가 늘었다"며 "지금처럼 세계 1·2위 경제 국가가 갈등하는 상태에서는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펠프스 교수는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돌아보는 데 소홀해졌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아직도 앞으로 10년, 2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 추정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6 yatoya@yna.co.kr

펠프스 교수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활력을 잃었고 혁신도 큰 타격을 받았다"며 "자기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면 국가 붕괴나 사회 소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해외 석학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 오지 못하고 녹화와 생중계 연결로 발언했다.

hye1@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 ▶[팩트체크] 한국은행이 5만원권 발행 중단?
- ▶제보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705668>



금융위원장 "9월에 대출 만기 재연장 얘기 안 하게 되길"

기사입력 2020-06-26 10:08

"과다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대비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혜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한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 주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희망을 내비쳤다.

그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9월 만기 연급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회사들과 핀테크(금융기술)를 앞세운 신생 사업자들 간 갈등 문제도 향후 당국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환경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기존 은행·카드사들은 이미 경쟁이 심한데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불만"이라며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 겸 기조연설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축사 겸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6.26 yatoya@yna.co.kr

shk999@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 ▶[팩트체크] 한국은행이 5만원권 발행 중단?
- ▶제보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705280>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기사입력 2020-06-26 08:58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6

yatoya@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 ▶[팩트체크] 한국은행이 5만원권 발행 중단?
- ▶제보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705051>



대화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전광우 이사장

기사입력 2020-06-26 08:58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6.26

yatoya@yna.co.kr

-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 ▶ [팩트체크] 한국은행이 5만원권 발행 중단?
- ▶ 제보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705050>



축사 겸 기조연설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사입력 2020-06-26 08:58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축사 겸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6.26

yatoya@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 ▶[팩트체크] 한국은행이 5만원권 발행 중단?
- ▶제보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705049>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기사입력 2020-06-26 08:56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6

yatoya@yna.co.kr

-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 ▶ [팩트체크] 한국은행이 5만원권 발행 중단?
- ▶ 제보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705044>

최훈 금융위 상임위원 "V자형 경기반등 어려워"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06.26 17:25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최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경기의 'V자형 반등'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최훈 상임위원은 26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에 기조발표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우 이전 스페인 독감이나 홍콩 독감 당시처럼 사태 이후 경기가 V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한다"고 말했다.

그는 "1918년 스페인독감과 1968년 홍콩 독감으로 인한 펜데믹은 코로나19보다 심각했지만, V자 경기 반등을 시현했었다"며 "당시 경제 상황을 지배하던 장기 트렌드가 펜데믹으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을 상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페인 독감 당시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전시동원 체제나 글로벌 생산성이 급등하는 상황, 이데올로기 진영 간 대립 등의 이슈가 펜데믹으로 인한 부정적 충격을 상쇄했다"며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과거 대공황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경제에 영향을 주는 속도 등을 능가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는 높은 취약성과 상대적으로 낮아진 혁신성, 양극화의 심화 등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탈세계화와 비대면 경제, 과잉 유동성 등의 측면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정치·경제적 보호주의를 촉매시키는 역할을 했다"면서 "다수 세력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냉전 2.0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경제도 질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코로나19로 양극화에 대한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로의 부담은 정치·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요국 정부 부채가 완화적 금융환경 속에서 급증하고 있다. 정치적 어려움을 포퓰리즘적 정책을 통하면서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도 발생할 것"이라며 "과잉 유동성을 되감는 테이

퍼링 충격에 대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은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를 유도하면서 취약계층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가 고착되면서 금융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위험투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함께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이 비생산적 자산에 쏠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저탄소·환경 친화적 사업 육성 등을 위한 금융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2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예원 기자

김용범 "코로나19에 'GO 시대'...한국·호주 등 미들 파워 리더십 주목"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06.26 14:17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서울=연합뉴스) 김예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캐나다, 호주 등을 주축으로 한 미들 파워 리더십을 주목했다.

김용범 차관은 26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위기에 대해 "수요와 공급 쇼크가 동시에 발생한 드문 복합적 위기"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약 500여일을 거쳐서 제로금리 수준이 된 반면 이번에는 불과 70일만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렸다"며 "충격도 즉각적이지만 정책 대응도 굉장히 빠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3개월 간 자산 매입 규모는 하루 평균 35조 원"이라며 "어마어마한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경제 위기(Economic crisis)에서 금융 위기(Financial crisis)로 전이되고, 위기가 더 불거지면 사회·정치적 위기(Social·Political crisis)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전세계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 수준에서 차단함으로써 금융 위기로 번지지 않게 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의 경우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불거지는 등 사회·정치적 위기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코로나19 팬더믹은 전 세계에 번져 있고 전 세계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면서 "국제 공조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캐나다, 호주와 같은 미들 파워 국가가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며 "주요 이슈별로 미들 파워 리더십을 구축하는 등 국제 공조의 대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G0 시대에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G0 시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 공조가 사라진 상황을 일컫는 용어다.

김 차관은 "최근 OECD가 경제 수정전망에서 우리나라를 '눈에 띄는 예외국가(Notable outlier)'로 평가했다"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충격 강도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재정확대를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그는 향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디지털·그린 뉴딜 등 케이 뉴딜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인수공통 전염병과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등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자각이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 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1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예원 기자

최희남 KIC 사장 "투자 시 ESG 요인 볼 것...장기 금리 인상 예의주시"

8 김예원 기자 | 2020.06.26 12:39 승인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향후 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희남 사장은 26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발표를 통해 "KIC는 2년 전에 스투어드십 원칙을 수립하는 등 책임있는 투자자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인 만큼 전세계의 사회적 니즈를 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니즈(S)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 잃고 안정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인간의 가치를 등한시 하는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향후 사회 부문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KIC는 전사적으로 ESG를 통합·확장할 것"이라며 "전통적 투자 대상 중 ESG 등급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익스포저를 관리해 나가고, 대체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ESG 리뷰를 진행하면서 투자 대상 기업과 자산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운용사 선정 시 투자 과정에서 ESG 요인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된 세계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는 만큼 역내·현지 공급업체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의 수혜자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소프트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데이터 센터와 통신 인프라, 헬스케어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1천570억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최 사장은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자산 배치를 기반으로 기회를 포착하겠다"며 "예를 들어 3

월에는 증권의 비중을 확대했다. 증권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이 가격에 반영돼 있고, 과도한 비관주의가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면서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변화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를 보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재정부양책의 일환으로 국채가 발행되면서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다른 국부펀드와 LP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3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예원 기자

안효준 국민연금 CIO "2024년까지 해외·국내 자산 비중 50:50으로 조정"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06.26 12:38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시장 전반에 걸친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산 비중을 높ی겠다고 밝혔다.

안효준 CIO는 26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발표를 통해 "경제·시장 전반에 걸친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35 대 65인 해외·국내자산 비중을 오는 2024년까지 50 대 50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기 자산운용 계획에 따라서다.

더불어 안 CIO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채권금리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채권 기대수익률이 하락했는데 이는 국민연금에 큰 시련이다. 수익률 실현에 있어 낮아진 채권 기대수익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 투자 시각을 기반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안 CIO는 이를 위해 액티브 핵심 전략과 액티브 기회포착 전략을 제시했다.

액티브 핵심전략은 각국 정부의 국채 매입하는 것이고, 액티브 기회포착 전략은 주로 MBS와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 CIO는 "액티브 핵심전략에 따라 채권에 투자,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변화에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며 "액티브 기회포착 전략의 취지는 투자 수익률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택트 경제가 대체 투자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를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안 CIO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특히 현장실사를 할 수 없어서 투자전략 실행이 어려웠는데 언택트 기술 덕에 애로사항을 해소했다"며 "연기금을 비롯해 관련 기관은 주요 투자자로서 이런 부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ESG에 초점을 맞춘 투자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ESG 종목이 하방 압력에 대한 회복력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와 투자수익률에 있어 ESG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3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예원 기자

은성수 "코로나19 공생 시대에 시스템 안정 최선"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06.26 09:4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공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재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제공조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데 대해서 아쉬움도 내비쳤다.

은성수 위원장은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유동성이 넘쳐나고 경제학 교과서에서 언급되던 마이너스 금리는 현실이 됐다. 재정부채가 급증하며 재정정책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 갈등 수위도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부진은 그간 세계 경제 성장 축이었던 글로벌 교역망도 약화시키는 등 탈세계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에 추진력이 더해지면서 기술 발전 등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실업자가 양산된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는 제레미 리프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시스템 취약점을 재점검하는 등 대응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당분간 코로나19와 공생하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는 지난 4개월간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금 공급이나 금융규제 유연화 등 정책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금융정책을 만들면서 향후 6개월간 버팀목이 될 자금을 준비했는데, 9월까지 계속 잘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높아질 당시에 수익성을 좇아 과도하게 쓸림현상이 있었던 일부 업권에서 유동성 위기가 감지됐다"며 "위기상황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재점검하고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 특히 언젠가는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가 올 텐데 미리 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적 자금공급자였던 가계가 수요자가 되고, 자금수요자였던 기업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겠다"며 "빅테크 등 새로운 도전자와 기존 플레이어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도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국제공조의 부족 현상에 대해서도 지목했다.

은 위원장은 "대공황 당시에는 국제공조 부족으로 위기가 확대된 것과 달리 2008년에는 활발한 공조를 기반으로 금융위기 확산을 억제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금융위기에 그때처럼 국제공조의 목소리가 크지 않고 그러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유동성 회수 시기가 오면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당국자로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3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예원 기자



은성수 "9월 상황 악화시 대출 만기 재연장 안 할수 있겠나"

기사입력 2020-06-26 11:18 최종수정 2020-06-26 14:32

하반기 코로나19 사태 진정 안되면 재연장 가능성 시사
"코로나 위기 6개월로 예상하고 정책 준비...3개 시나리오로 고민중"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6.16/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 등의 대출 만기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9월이 되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는데 할 만큼 했다고 (정책 연장을) 안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반기에도 진정되지 못할 경우 대출 만기를 또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은 위원장은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연 국제 콘퍼런스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초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을 9월로 할 때, 3달 정도만 연장하면 된다고 했지만 대책을 과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 6개월 연장으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9월30일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책이 종료되는 9월 이후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커진 상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전 금융권이 6~12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대책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플랜A는 코로나19가 제대로 종식됐을 때, B는 제대로 끝나지 않을 때, C는 현재보다 악화했을 때 등으로 나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 등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은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도 "금융정책을 만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했는데 이미 6월 말이 됐다"며 "다시 연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3개월 내 잘 끝나 사태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대응 정책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목적이 주 목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동력 유지와 성장의 버팀목"이라며 "코로나와의 공생 시대에 금융의 적극적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유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

-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421&aid=0004719198>

NEWSIS

'노벨상 석학' 스티글리츠 "코로나 팬데믹으로 '탈세계화' 직면"

기사입력 2020-06-26 13:55

세계 석학들 "코로나 이후 세계화 쇠퇴 기조"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제사회가 '탈세계화'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의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연설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중계를 통해 이뤄졌다.

그는 "그동안 세계화가 불가피하고 영원히 지속될 현상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았듯 세계화의 따른 국가간 대규모 자본흐름은 우리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며 "제조

업 기반 경제에서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전환하면서 더이상 모든 국가에서 성장하지 않고,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교역량이 하락하는 추세가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만든 세계경제가 결국 회복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며 "어떻게 보면 '스페어(여분) 타이어가 없는 자동차'와 다를게 없다. 문제가 없을 땐 작동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시스템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사회개혁 등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간 균형잡힌 시스템을 만들어 회복력있는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간 공조의 필요성도 내세웠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더이상 세계화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 보듯 결국 종식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걸 알 수 있다"며 "공동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방법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부문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전세계가 불황을 겪고 있지만, 금융부문은 이자를 거두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듯 싶다"며 "이번 경기 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이고, 대공황에서 회복하는 데에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제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설자로 나선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도 세계화 쇠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인하트 부총재는 "21세기에 세계화로 국경간 자본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교역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흐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도국과 신흥국에서 훨씬 높은 수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국가간 자본 이동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가 회복되기까진 상당기간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는 전제 하에서 워낙 이전에 큰 폭 하락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제 수치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완전한 회복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4~6년이 지나야 1인당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9936334>



안효준 국민연금 CIO "대체투자, '언택트 실사'로 위기 해소할 것"

기사입력 2020-06-26 12:40

"채권자산군, 액티브 핵심·기회포착 전략 수립"
 "액티브 기회포착 전략으로 MBS·회사채 투자"
 "TF로 전반적 리스크 관리...아직 어려운 시기"



[서울=뉴스시스]류병화 기자 =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2020.06.26. hwahwa@newsis.com

[서울=뉴스시스] 류병화 기자 =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산군별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대체투자 자산군은 언택트 기술을 도입해 현장 실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주식 자산군은 태스크 포스(TF)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및 갑작스러운 리스크를 관리하고 채권 자산군은 액티브 투자 전략을 꺾을 예정이다.

안효준 국민연금 CIO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연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체투자의 어려움에 대해 "언택트 기술을 통해 현장실사의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언택트 기술은 새로운 트렌드로, 기존의 투자 절차까지 바꾸게 될 것이며 관련 기관은 주요 투자자로서 적극 대응하고 포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위 언택트 경제가 대체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줄고 온라인 접촉이 늘어나며 관련 사업이 떠올라 국민연금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CIO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 "올해 초 마련된 TF를 통해 신축적인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직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28일부터 위기대응 특별 TF를 가동해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산가격이 급락하자 목표 비중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이어 안 CIO는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로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장기투자자 입장에서 기대수익률 충족에 시련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 전략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 CIO는 액티브 핵심 전략(Active-Core strategy)과 액티브 기회포착 전략(Active-Opportunistic strategy)을 제시했다. 액티브 핵심 전략은 고수익을 추구하며 우량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액티브 기회포착 전략은 비교적 저평가돼 있는 자산에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이 전략을 통해 주로 주택저당증권(MBS)이나 회사채를 매입할 예정이다.

그는 "액티브 핵심 전략과 액티브 기회포착 전략을 통해 수익률을 회복할 것"이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와 자산 다변화를 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장기투자에 적합해 이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해 연기금들은 ESG 종목이 하방 압력에 회복력이 긍정적이므로 리스크 관리와 투자수익률을 위해 반드시 ESG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최희남 사장도 연사로 참석했다. KIC는 국부펀드로 총 1570억 달러(188조원)를 운용하고 있다.

최 사장은 "2차 웨이브가 나올 수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회복될 것"이라며 "장기투자자 입장에서 회복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이라

고 설명했다.

이어 "KIC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시장 회복을 고려하고 있다"며 "각각의 회복 방식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KIC는 전자상거래와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투자 기회를 찾을 것"이라며 "또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져, 기업들이 국내나 지역 공급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수혜자를 찾아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9936227>

최고의 언론 뉴스
NEWSIS

은성수 "9월에도 상황 어려울 수 있어 대비해야"...대출 만기연장 시사

기사입력 2020-06-26 11:20

"남은 3개월, 연장하라는 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서울=뉴스시스] 박미소 기자 = 최기영(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출 만기연장 시한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당분간 코로나가 공생하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난 4개월간 자금공급, 금융규제 유연화 등 각종 위기대응을 위해 마련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데 전력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 공생 시대에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 기능 강화

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책을 하면서 코로나가 6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해 자금연장을 6개월로 잡았는데 앞으로 3달 남았다"며 "다시 연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남은 3개월 내에 잘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은 상환방식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은 위원장은 행사 이후 기자들을 만나 "당초 대책은 과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6개월 연장으로 했다"며 "9월말에도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랜 A는 제대로 끝났을 때, 플랜 B는 제대로 안 됐을 때, 플랜C는 악화됐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미리 시장과 소통을 해야 한다"며 "특별히 (정책을) 계획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9936034>

최대한 신속하게
NEWSIS

은성수 "위기 때 진짜 실력 드러나...금융시스템 재점검 기회"

기사입력 2020-06-26 10:41



[서울=뉴스시스]김병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6.11. dadazon@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재점검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연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19와 공생하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지난 4개월 간 위기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금 공급, 금융규제 유연화 등 각종 위기대응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을 만들면서 코로나 위기를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했는데 이미 6월 말이 됐다"며 "다시 연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3개월 내 잘 끝나 사태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

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기 대응 정책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목적이 주 목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동력 유지하고 성장의 버팀목이 된다"며 "코로나와의 공생 시대에 금융의 적극적 실물 기능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유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시스템은 과거 수차례 위기를 거치며 상당 수준의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하지만 진짜 실력은 위기에 나타난다는 말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당시 수익성을 쫓아 과도한 쓸림현상 있었던 일부 업권에서 유동성 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재점검하고 제도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정상화 시킬 때를 대비해 어떻게 금융안정을 시킬지 미리 충실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금융,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금융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노동수요 감소, 양극화심화 등 사회 문제는 자금공급자로서의 가계, 자금수요자로서의 기업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미 지금도 전통적인 공급자였던 가계가 수요자가 되고, 기업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 저금리는 새로운 버블을 만들고 가계 저축과 소비 행태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며 "또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오는 금융혁신은 빅테크 등 새로운 도전자들과 기존 플레이어들을 조화롭게 수용해야 할 과제를 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마주친 많은 과제를 앞두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며 "또 금융당국은 낡은 규제 개선, 새 정책수단 개발 등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 현재 코로나 위기 속 국제공조가 부재한 것을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대공황 당시에는 국제공조 부족으로 위기가 확대된 것과 달리,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엔 활발한 공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며 "코로나19 위기에 국제공조 목소리가 크지 않고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만간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기가 오면 국제공조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행사가 국제공조 실행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김용범 기재차관 "코로나 이후 유동성 급증 부작용, K-뉴딜로 극복"

기사입력 2020-06-26 15:18 최종수정 2020-06-26 15:35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지출 등으로 유동성이 급증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한국형 뉴딜(K-뉴딜)'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26일) 세계경제연구원(IGE)과 하나은행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강연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금융위기 이후 기존 양적 완화와 저금리, 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남아있었는데 코로나 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재앙이 닥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부채, 자산가치 상승, 부실기업으로의 유동성 공급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유동성 공급 부작용 극복 방안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된 한국형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형 뉴딜에 대해 김 차관은 "단기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 사회 구조의 국가 대전환"이라며 "재정지출과 생산성 증대 타겟팅으로 유동성 급증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각국이 '포용적 회복력(inclusive resilience)' 경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보험 확대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전직과 재교육 등을 용이하게 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 ▶ 우리 동네 무슨 일이? KBS지역뉴스
- ▶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6&aid=0010859531>



은성수 금융위원장 "9월에 대출 만기 재연장 얘기 안 하게 되길"

기사입력 2020-06-26 10:22 최종수정 2020-06-26 10:3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한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26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 주제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9월 만기 연금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또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들과 핀테크(금융기술)를 앞세운 신생 사업자들 간 갈등 문제도 향후 당국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라고 은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환경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기존 은행, 카드사들은 이미 경쟁이 심한데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불만"이라며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 ▶ 우리 동네 무슨 일이? KBS지역뉴스
- ▶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6&aid=0010859346>

MBC

금융위원장 "9월에 대출 만기 재연장 얘기 안 하게 되길"

기사입력 2020-06-26 11:42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한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를 주제로 한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나림 기자 (all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은성수 "만기 연장, 9월 끝나면 해피엔딩...재연장 고민"

기사입력 2020-06-26 15:56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한 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6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은 위원장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며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들과 핀테크를 앞세운 신생 사업자들 사이 갈등 문제도 당국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환경변화를 유도하려 하지만, 기존 금융회사들은 '이미 경쟁이 심한데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불만"이라며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메시지는 앞서 지난 11일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기업이든 개인이든 대출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은 아니고 능력이 되면 다시 갚아야 한다"며 "더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터널 끝으로

나갈 일이 있을 거고, 그럼 그 부분(대출)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시켜준 부분도 원상회복해서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겠냐"며 "그때를 대비해 다같이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존 금융회사들과 핀테크 사업자들 사이 갈등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어디까지 유인책을 줘 금융시장에 들어오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규제 속에서 페어플레이 하도록 해야 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jioh@sbs.co.kr)

▶ 언제 어디서나 SBSCNBC [온에어click]

▶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374&aid=0000214661>



정부 "코로나 이후 유동성 급증 부작용, 한국형 뉴딜로 극복"

기사입력 2020-06-26 15:23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지출 등이 늘어 유동성이 급증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한국형 뉴딜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세계경제연구원(IGE)과 하나은행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강연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양적 완화와 저금리, 부채증가 등의 부작용이 남아있는 와중에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재앙이 닥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 정부의 과도한 부채, 자산가치 상승, 부실기업으로의 유동성 공급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유동성 공급 부작용 극복 방안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된 한국형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 단기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사회 구조의 국가 대전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정지출과 생산성 증대 타겟팅으로 유동성 급증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2&aid=0001457549>

국민일보

기재차관 “과다 부채, 부동산 상승 등 K-뉴딜로 극복”

기사입력 2020-06-26 15:13 최종수정 2020-06-26 15:18



(서울=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TF 6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동성 급증에 따른 정부 과다 부채와 자산가치(부동산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한국형 뉴딜(K-뉴딜)'로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IGE)와 하나은행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기존 양적 완화와 저금리, 부채증가 등의 부작용이 남아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재앙이 닥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과다한 부채, 자산가치 상승, 부실기업으로의 유동성 공급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대책은 있다고 했다. 유동성 공급 부작용 극복 방안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된 한국형 뉴딜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K-뉴딜은 단기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사회 구조의 국가 대전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정지출과 생산성 증대 타겟팅으로 유동성 급증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포용적 회복력(inclusive resilience) 경제 시스템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각국이 포용적 회복력 경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보험 확대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전직과 재교육 등을 용이하게 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5&aid=0001335906>

한국일보 

노벨상 석학 스티글리츠 "회복력 없는 세계 경제는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

기사입력 2020-06-26 16:16

"평소엔 잘 작동하는 것 같지만 위기 회복력 없다는 것 드러내"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77)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세계 경제를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에 비유했다. 평상시에는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위기 대처를 할 힘이 없다는 얘기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방한하지 못하고 영상 녹화본을 통해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회복력이 없다는 것은 단기 수익을 위해 장기 안정성을 훼손해 온 시장 경제의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하는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화가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역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세계화의 퇴조를 시사했다. 이어 "결국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긴밀히 협력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대공황 당시에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못 했지만, 이번에는 공조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문 제임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 연설자로 나선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도 “코로나19 이후 세계 자금 흐름이 거의 붕괴됐고 교역량도 큰 폭으로 위축돼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문제가 나타났을 때 많은 국가가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여 왔는데, 지금처럼 세계 1, 2위 경제 국가가 갈등하는 상태에서는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의 위기를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단기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사회 구조의 국가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 [한국일보 페이스북 친구맺기] [한국일보 홈 바로가기]

▶ 네이버 채널에서 한국일보를 구독하세요!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469&aid=0000509927>

MoneyS

은성수 "코로나 위기, 오히려 금융신뢰 회복할 기회"

기사입력 2020-06-26 11:05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재점검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DB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재점검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금융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연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19와 공생하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지난 4개월 간 위기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금 공급, 금융규제 유연화 등 각종 위기대응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을 만들면서 코로나 위기를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했는데 이미 6월 말이 됐다"며 "다시 연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3개월 내 잘 끝나 사태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기 대응 정책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목적이 주 목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

장동력 유지하고 성장의 버팀목이 된다"며 "코로나와의 공생 시대에 금융의 적극적 실물 기능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유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금융,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금융정책 마련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노동수요 감소, 양극화심화 등 사회 문제는 자금공급자로서의 가계, 자금수요자로서의 기업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미 지금도 전통적인 공급자였던 가계가 수요자가 되고, 기업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 저금리는 새로운 버블을 만들고 가계 저축과 소비 행태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며 "또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오는 금융혁신은 빅테크 등 새로운 도전자들과 기존 플레이어들을 조화롭게 수용해야 할 과제를 준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위기 속 국제공조가 부재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대공황 당시에는 국제공조 부족으로 위기가 확대된 것과 달리,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엔 활발한 공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며 "코로나19 위기에 국제공조 목소리가 크지 않고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 ▶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 영상
- ▶ 거품 뺀 솔직 시승기 ▶ 코로나19 속보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417&aid=0000560518>

서울경제

"세계경제는 예비타이어 없는 車... 싫어도 서로 손잡을 줄 알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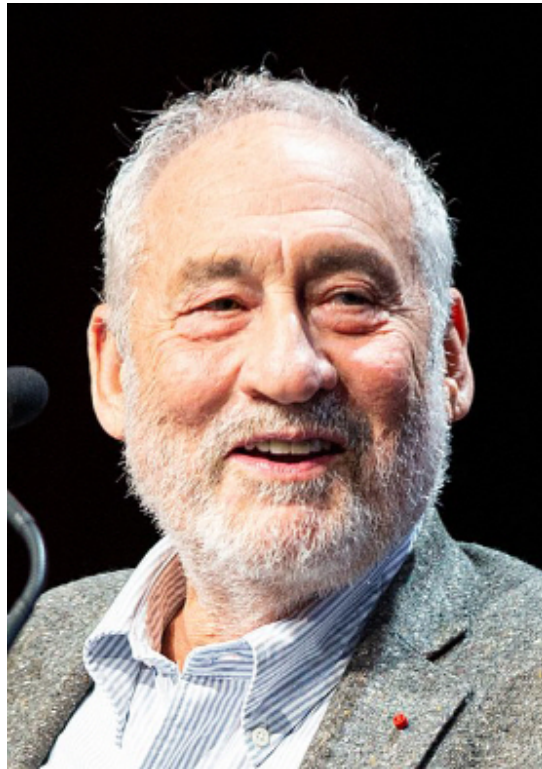
기사입력 2020-06-26 17:32

'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세계경제연구-하나은행 콘퍼런스 기조연설

"단기수익 위해 장기안정성 훼손

결국 각국경제 회복력 떨어뜨려

의약품 최저가 공급 등 공조 필요"



조지프 스티글리츠/위키피디아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가 만든 세계 경제가 '스페어(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다를 게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시스템을 회복할 능력을 잃습니다."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기조연설에서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가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들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이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는 모든 나라에서 정체를 보이고 GDP 교역량도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이전에도 각국 경제는 세계화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며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업 기반으로의 생산구조 전환은 코로나19로 더욱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기수익을 위해 장기 안정성을 훼손하면서 각국 경제의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불과 몇 분을 아끼기 위해 생산역량을 갖추지 않은 채 외부에 의존했고 이로 인해 마스크 등 방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일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 19는 우리가 상호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보건과 환경·기후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구명보트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타더라도 같이 노를 저어 안전 지대로 가야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권을 만들어 전 세계 어디서도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이 최저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부 백신 보호주의나 부유층에게 최우선의 접근성을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초래할 경기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이라며 "대공황 때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못했지만 이번에는 공조가 필요한 전 세계의 문제임을 깨닫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에드먼드 펄프스/위키피디아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펄프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소요와 같은 혼돈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펄프스 교수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향후 10년·20년간의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추정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활력을 잃었고 혁신도 큰 타격을 받았다"며 "자기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면 국가 붕괴나 사회적 소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카르멘 라인하르트/위키피디아

카르멘 라인하르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하버드대 석좌교수도 “코로나19 이후 세계 자본의 흐름이 거의 붕괴했고 교역량도 큰 폭으로 위축됐다”며 “1인당 소득은 대단히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저소득 노동자들이 실직 등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영세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해외 석학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국에 오지 못하고 녹화와 생중계로 참여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aily.com

- [서울경제 바로가기]
- ▶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
- ▶ [서울포럼 2020] 과학기술 초격차가 답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1&aid=0003759840>

서울경제

은성수 "9월, 대출 만기 재연장 이야기 않게 되기를"

기사입력 2020-06-26 11:57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

"다만 코로나 장기화 시 갑자기 손 털 수도 없어"

금융권에 "같이 고민해보자"

과다 유동성에는 "정상화 시 시장 안정화도 대비"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

그는 기초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을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금융권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9월 30일까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플랜A는 코로나가 제대로 종식됐을 때, B는 제대로 끝나지 않을 때, C는 현재보다 악화했을 때 등으로 나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 등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과잉 유동성도 경고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등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환경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기존 은행·카드사는 이미 경쟁이 심한데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서울경제 바로가기]
- ▶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
- ▶ [서울포럼 2020] 과학기술 초격차가 답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1&aid=0003759624>

"지금은 대공황 때와 비슷...회복까지 4~6년 걸릴 것"

'포스트 코로나' 국제콘퍼런스
라인하트 "가계 재무건전성 취약"
크루거 "물가상승 압력 선제대응을"

한영훈·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 입력 : 2020-06-29 05:00 | 수정 : 2020-06-28 06:11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6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은 대공황 당시와 비슷한 면이 많다. 향후 최소 4~6년은 지나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조차도 2차 유행이 없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일이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하버드대학 석좌교수는 지난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석좌교수와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를 비롯해 라인하트 수석부총재,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공동 설립자 겸 공동 회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라인하트 교수는 앞서 금융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위기 상황 때보다 현재의 상황이 한층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률, 기업 활동 등 일부 경제지표에서의 호조를 기대할 순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회복인지 점치는 데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하버드대 석좌교수. [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라인하트 교수는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5년이 지난 후에야 1인당 GDP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경우 아직까지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계 재무건전성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기업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많은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가계는 적어 건전성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라인하트 교수는 "각국 중앙은행이 기업 등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역시 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가 가져올 경기 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공황에서 회복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가에서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고, 각국의 강력한 경제회복이 전제돼야 글로벌 경제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 수익과 장기 안정성의 균형감 있는 성장도 필요 과제로 제시했다.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해 장기 안정성을 소홀히 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적인 합리성과 인도주의에 기반한 국가별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금융부문이 전세계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앤 크루거 전 IMF 수석부총재는 기업과 가계가 리스크 관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이러한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금과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며 "또 만약 백신이 개발돼 국민들이 심리가 개선되면 빠른 속도로 소비가 반등할 것이다. 이 경우 물가상방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영훈·장은영 기자(eun02@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훈 금융위 상임위원 “저금리 고착화...고위험 투자 규제강화 시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 입력 : 2020-06-26 05:14 | 수정 : 2020-06-26 05:14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6 [사진=연합뉴스]

최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금융회사보다 공격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위험 투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규제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상임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추가적인 금리 하락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 저금리가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이 됐다"며 "유동성 과잉을 고려해 미 연준이 2015년 말부터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시도했지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정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았고, 포퓰리즘적 정책을 통해 확산돼 나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재정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생산성 저하가 예상되면서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인하가 체질 개선 없이 자산 시장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 트렌드는 (경제의) 취약성은 높이고, 혁신성은 약화시키고, 양극화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융정책을 통해) 신용 유동성의 자산 쓸림을 최소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할 것"이라며 "저탄소 그린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질서 있는 글로벌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은영 기자(eun02@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앤 크루거 전 IMF 수석부총재 “저소득 국가에 코로나 지원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 입력 : 2020-06-26 03:18 | 수정 : 2020-06-26 03:18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6 [사진=연합뉴스]

앤 크루거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개도국이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를 다른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앤 크루거 전 수석부총재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의 경우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지만 일부 국가는 재정이 취약해 코로

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개발도상국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거나 경제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 국가에 대해 단순한 자금 지원은 부족하고, 의약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위기와 비교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이전의 위기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났는데, 코로나는 갑자기 경제가 정지해 버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코로나 이후 이러한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금과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며 "만약 백신이 개발돼 국민들이 심리가 개선되면 빠른 속도로 소비가 반등할 것이다. 이 경우 물가상방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국가 간 신뢰가 구축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부터 미중 갈등이 심각했는데, 미국이 비난하는 것만큼 중국이 큰 잘못을 하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두 국가가 관계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콩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홍콩에 있는 국제금융기관 아시아본부가 소재지를 옮길 수 있다.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장은영 기자(eun02@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팀 아담스 국제금융협회 총재 “국제사회, 코로나19 사태에 협력정신 부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 입력 : 2020-06-26 02:57 | 수정 : 2020-06-26 02:57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6 [사진=연합뉴스]

팀 아담스 국제금융협회(IIF) 총재는 “과거 위기 때마다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협업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팀 아담스 총재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세계화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우리가 세계화로 인해 이룬 것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며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적

견해 많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한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전에 이미 정점을 찍었고, 코로나 이후 다시 급증해 전후 한 번도 관찰되지 않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실물경제를 살려야 했지만 언젠가는 이 부채를 어떻게 갚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팀 아담스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자본을 증가시켰고, 전 세계 은행은 우량 자본을 가지고 있고 유동성을 높였다”며 “지금 금융 부문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악화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항공산업, 호텔, 여행 등은 지불 불능상태가 될 수 있어 은행이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재무 상태 회복력을 확보해서 시장의 역학에 대비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당국이) 은행의 자본구조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안정화 이후 코로나 사태를 되돌아보면서 당시 규제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로 인해 시스템이 복잡해져 코로나 대응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며 “대선에서 더 진보적 성향으로 가게 된다면 은행 산업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실물경제를 살릴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충분한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장은영 기자(eun02@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스티글리츠 교수 “코로나19로 단기수익보다 장기 안목 필요성 강조”

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 입력 : 2020-06-26 12:36 | 수정 : 2020-06-26 12:36



[사진=연합]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작동하지만, 문제 발생 시 회복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이후에는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각국 간 ‘연결성 부족’ 사태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세계는 이미 ‘초세계화’로부터 뒷걸음질치고 있었다”며 “2008년 이후 전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는 모든 국가에서 성장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세계 GDP 대비 교역량은 감소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을 예상치를 넘어설 거란 의견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가 가져올 경기 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공황에서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호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모든 국가에서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고, 각국의 강력한 경제회복이 전제돼야 글로벌 경제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 수익과 장기 안정성의 균형감 있는 성장도 필요 과제로 제시했다.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해, 장기 안정성을 소홀히 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외 시장과 정부, 시민사회 간 더욱 균형잡힌 시스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적인 합리성과 인도주의에 기반한 국가별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금융부문이 전세계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영훈 기자(ha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회장 “코로나19 백신 출시, 내년 가능할 것”

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 입력 : 2020-06-26 11:29 | 수정 : 2020-06-26 05:54

“코로나 19 이후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졌지만, 4분기에는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리일그룹 회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2분기 미국경제 상황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좋지 못하지만, 장기불황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경기불황은 일반적으로 볼 때 3~4년 가량의 회복기간을 필요로 한다”며 “(상황을) 온전히 위기 전으로 돌리려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회복세 전환은 이르면 4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재무부·의회·연준도 최적화된 협업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

그는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내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그동안 백신 개발에는 평균 7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고, 가장 빨랐던 것도 4년이였다”면서 “코로나 백신개발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120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인데, 미국은 5개 제약사

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모든 필요 역량을 모으고 있는 만큼, 백신 공급이 내년에 가
능할 수도 있단 설명이다.

한영훈 기자(ha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 “코로나19 경제 상황, 대공황 때와 유사한 측면 많아”

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 입력 : 2020-06-26 11:14 | 수정 : 2020-06-26 05:55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은 대공황 당시와 비슷한 면이 많다. 향후 최소 4~6년은 지나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조차도 2차 유행이 없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일이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하버드대학 석좌교수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위기 상황 때보다 한층 심각한 현재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고용률, 기업 활동 등 일부 경제지표에서의 호조를 기대할 순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회복인지 점치는 데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도 예를 들었다. 라인하트 교수는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5년이 지난 후에야 1인당 GDP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경우 아직까지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계 재무건전성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기업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많은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가계는 적어 건전성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라인하트 교수는 "각국 중앙은행이 기업 등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제정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한영훈 기자(ha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은성수 “코로나 상황, 금융시스템 재점검 기회로 만들 것”

장은영 기자 (eun02@ajunews.com) | 입력 : 2020-06-26 09:35 | 수정 : 2020-06-26 09:35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축사 겸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6.26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상황을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재점검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과거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당시 일부 업권에서 유동성 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과정에 드러난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향후 과다한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 안정에 충실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만들어진 각종 금융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금은 지난 4개월 동안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금의 공급, 금융규제 유연화 등 각종 위기대응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와 공생의 시대에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금융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마주칠 많은 도전과제를 앞두고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등을 통한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금융당국은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금융규율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장은영 기자(eun02@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금융권 ESG경영] 코로나 계기 금융권 '착한 경영' 확대

친환경·상생 경영 위한 조직 운영

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 입력 : 2020-07-02 08:00 | 수정 : 2020-07-02 07:46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인 'ESG'가 금융권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사들은 저마다 ESG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의미인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의 ESG활동 반경이 넓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지난 3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 중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비롯해 사내외 이사 9명 전원이 참여한다. 별도 부서가 아닌 이사회 내 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ESG 조직을 신설한 것은 금융권에서 KB금융이 처음이다. 자회사별로 추진해 온 ESG 경영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통합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신한금융그룹도 그룹 차원에서 ESG 활동을 펼치기 위한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지속

가능경영협의회를 두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은 친환경 경영을 통해 ESG경영 선두주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저탄소 녹색사업을 위해 지주와 은행, 카드 3개사가 현재까지 2조9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지난해 에너지 및 친환경 분야에 8018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올해 1분기에도 1570억원을 투자했다. 신한금융은 2030년까지 녹색산업에 20조원을 투자·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저감하는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 2020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주 전략기획부에서 올해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편입을 목표로 ESG 업무를 펼치고 있다. DJSI는 미국 다우존스가 발표하는 '지속가능경영' 지표로, 선진국 중심의 ESG 투자 흐름이 확산하고 있는 데 보조를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금융권의 이 같은 경영활동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패러다임 변화'포럼에서 국제금융협회(IIF)의 소니아 기브스 매니징 디렉터는 "코로나19 사태가 기후는 물론 부실한 의료시스템 및 재정정책 효과 등 ESG와 연관된 문제였던 만큼, 향후 각국의 규제는 생태계 복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속가능한 금융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서대웅 기자(sdw618@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안효준 국민연금 CIO "ESG투자, 코로나 국면서 높은 회복력 발휘"

기사입력 2020-06-26 12:51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파이낸셜뉴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는 하방 압력에 대한 회복력이 좋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는 장기투자자로서 리스크 관리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사진)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마련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는 심각한 세계 경제 침체를 야기했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며 "국민연금은 난기류 속에서 공적연금 관리자로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 2월부터 특별위험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 자산관리계획을 수정했다. 안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에서 외국 자산과 대체 부문에 대한 할당을 계속 늘릴 것"이라며 "현재 해외자산과 국내자산 배분 비중이 35 대 65 수준이지만 향후 중기자산운용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50 대 50'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경기부양 정책은 채권 수익률을 0 또는 그 이하로 떨어뜨려 채권의 기대수익률 하락을 불러왔다"며 "이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구성 요소를 고려할 때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관련 산업과 기술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연금에게도 대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대체 투자에서 언택트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실사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택트 기술 덕분에 현장 실사의 애로점이 해소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새로운 추세가 중국에는 투자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볼 수 있었다"며 "새로운 추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경제활동이 크게 줄면서 연금 수급자 중 상당수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은 연금 수혜 세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수익률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 ▶ **혁!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혁신]**
- ▶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4&aid=0004450519>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 위기를 금융시스템 재점검 기회로 만들 것"

기사입력 2020-06-26 09:29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디지털 뉴딜' 정책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만들어진 각종 금융정책의 효율적 실행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의 상황을 금융시스템의 전반적 재점검 기회로 만들겠다."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국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와 공생하는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4개월 동안 위기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금의 공급, 금융규제 유연화 등 각종 위기대응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기대응 정책은 단기적으로 금융안정이 주된 목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성장궤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며 "코로나와 공생하는 시대에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과거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안정성(stability)과 복원력(resilience)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위기 과정에 드러난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해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기술과 플랫폼의 등장,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만남으로 진화하던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며 "온라인학습, 재택근무, 디지털 금융 등 디지털을 매개로 글로벌 산업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기술발전과 경영혁신이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가 양산된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라는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예언은 귀담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와 유동성 공급정책의 결과로 인한 자산의 양극화, 그리고 경제적 능력 차이로 인한 보건의 양극화 등 코로나로 촉발된 각종 불평등 심화 현상은 정책당국자들에게 더 깊은 고민거리를 안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마주칠 많은 도전과제를 앞두고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등을 통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금융당국은 낡은 금융규제의 개선,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 등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금융규율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 ▶ **혁!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혁신]**
- ▶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4&aid=0004450316>

기재차관 "코로나 이후 유동성 급증 부작용, K-뉴딜로 극복"

김태호 | 승인 2020.06.26 15:35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중 정부 지출 등으로 유동성이 급증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한국형 뉴딜(K-뉴딜)'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IGE)과 하나은행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강연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기존 양적 완화와 저금리, 부채증가 등의 부작용이 남아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재앙이 닥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부채, 자산가치 상승, 부실기업으로의 유동성 공급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유동성 공급 부작용 극복 방안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된 한국형 뉴딜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 "단기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사회 구조의 국가 대전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정지출과 생산성 증대 타겟팅으로 유동성 급증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각국이 '포용적 회복력(inclusive resilience)' 경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보험 확대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전직과 재교육 등을 용이하게 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호

금융위원장 "9월에 대출 만기 재연장 얘기 안 하게 되길"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6.26 15:17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한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 주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희망을 내비쳤다.

그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9월 만기 언급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회사들과 핀테크(금융기술)를 앞세운 신생 사업자들 간 갈등 문제도 향후 당국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환경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기존 은행·카드사들은 이미 경쟁이 심한데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불만"이라며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인수 기자

아시아경제 ▣

실물·금융 괴리에도 돈 푼다..."부작용은 잘(?) 관리하는 방법밖엔..."

기사입력 2020-06-28 10: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전세계 유동성 확대
자산가격 급등세 나타나고 있지만 유동성 거둬들일 수는 없어

지켜보며 완화기조 유지, 부작용 나타날 때마다 관리하는 수밖에
각국 뾰족한 방법 없어 실물경제로 유동성 흐르게 하는 방안 고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푼 가운데, 불어난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동성 공급을 통해 그나마 금융기관 등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사실인데, 아직 실물 경제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데다 자산시장만 급등하는 모양새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있고,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기업과 가게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유동성을 당장 거둬들일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5일(현지시간) 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

현상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글로벌 실물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반면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있어 유동성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MF는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현상이 사라지면 괴리가 나타난 자산가치가 또다른 조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경기회복에도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시장 가격과 펀더멘털에 기초한 밸류에이션(가치)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실제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기타 고포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유동성을 아직 거둬들이는 때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타 고포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GFSR 발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각국이 유동성을 풀면서 오른 부채비율의 위험성 대한 질문을 받고 "각국이 공조하며 유동성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정도 경제충격으로 그칠 수 있었다"며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을 함께 동원하면서 계속 공조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높은 부채비율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상황에선 신흥국들에게 특히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국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세계적인 현상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정책효과가 반영된 올해 말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은 14.8%다.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14.1%)에 비해 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증권회사의 올해 말 예상 순자본비율(NCR)은 516.7%(baseline)로 정책이 없었을 때(310.1%)에 비해 20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후 한은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었고, 정부의 정책도 함께 효과를 내며 금융기관이 자본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한국에서도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5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대응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진정 기미를 보였던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동성 확대 공급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를 나타냈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우려할만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 정책의 효과,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경기, 물가 상황을 고려해볼 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요약하면 전 세계가 막대한 자금을 풀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일단은 각국이 '잘' 관리하는 수밖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 세계가 저금리 기조에서 유동성을 풀고 있는데, 어느 한 국가 특히 신흥국이 먼저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채가 쌓이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이미 금리가 낮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린 비용 자체는 높지 않다"며 "만일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치를 비용이 높은 부채비율보다 더 위험하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급증한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으로 '한국형 뉴딜'을 제시한 상황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IGE)과 하나은행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강연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부채, 자산가치 상승, 부실기업으로의 유동성 공급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재정지출과 생산성 증대 타깃팅으로 유동성 급증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은성수 "9월에 대출 등 만기 재연장 하자는 말 나오지 않길"

기사입력 2020-06-26 13:55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한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라는 주제의 국제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거

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환경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기존 은행·카드사들은 이미 경쟁이 심한데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불만"이라며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 ▶ 2020년 하반기, 재물운·연애운·건강운 체크!
- ▶ 네이버에서 아시아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놀 준비 되었다면 드루와! 드링킷!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277&aid=0004706776>

이데일리

코로나19 하루 4만명 확진...美 뒤흔드는 2차 팬데믹 공포

기사입력 2020-06-29 00:01 최종수정 2020-06-29 06:31

- 코로나 1천만 감염 4명 중 1명 美서 발생
- 경제 재개 후...하루 4만명 이상 최대 확진
- "3분기 경기 반등" 월가 기대 사그라들어
- WB "당장 美 탄력적인 경제 회복 어렵다"
- 백신 안 나온다면...모든 경제 상황 불확실
- 중남미·남아시아 코로나 확산세도 우려 ↑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오번의 에메랄드 다운스 경마장에서 구멍을 낸 마스크를 쓴 나팔수가 경마가 시작되기 전 트럼펫을 불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V자형 경기 반등은 어렵다."

경제위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

수와 함께 쓴 '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로 유명하다. 과거 800년간 66개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집대성한 책이다. WB가 지난달 그를 WB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앉힌 것도 이같은 전문성 때문이다.

라인하트의 언급 중 특히 주목되는 건 "경제 수치가 (일부) 회복하는 모습은 기대할 수 있지만 (추세적이고) 탄력적인 회복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251만개의 일자리 (비농업 부문)가 만들어지며 V자형 반등을 기대했던 월가에 찬물을 끼얹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달 비농업 고용(다음달 2일 발표)은 315만개 증가가 컨센서스다. 지난달보다 더 많다. 하지만 라인하트는 "이것이 완전한 회복인지 점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그의 '우울한 전망'의 기저에는 코로나19가 과거 전염병과는 다르다는 판단이 있다. 경제 전면 봉쇄까지 시행한 전염병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가능성은 계속 살아있다는 의미다.

◇美 하루 4만명 확진...V자 반등 기대 ↓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반년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미국에서만 역대 최대인 하루 4만명 이상이 감염되면서 일부 주들은 경제 재가동을 철회했다.

28일 블룸버그가 24개 국내외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소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미국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연율 기준(전기 대비 성장률을 연 단위로 환산) -34.5%로 나타났다. 1분기(-5.0%)를 한참 밑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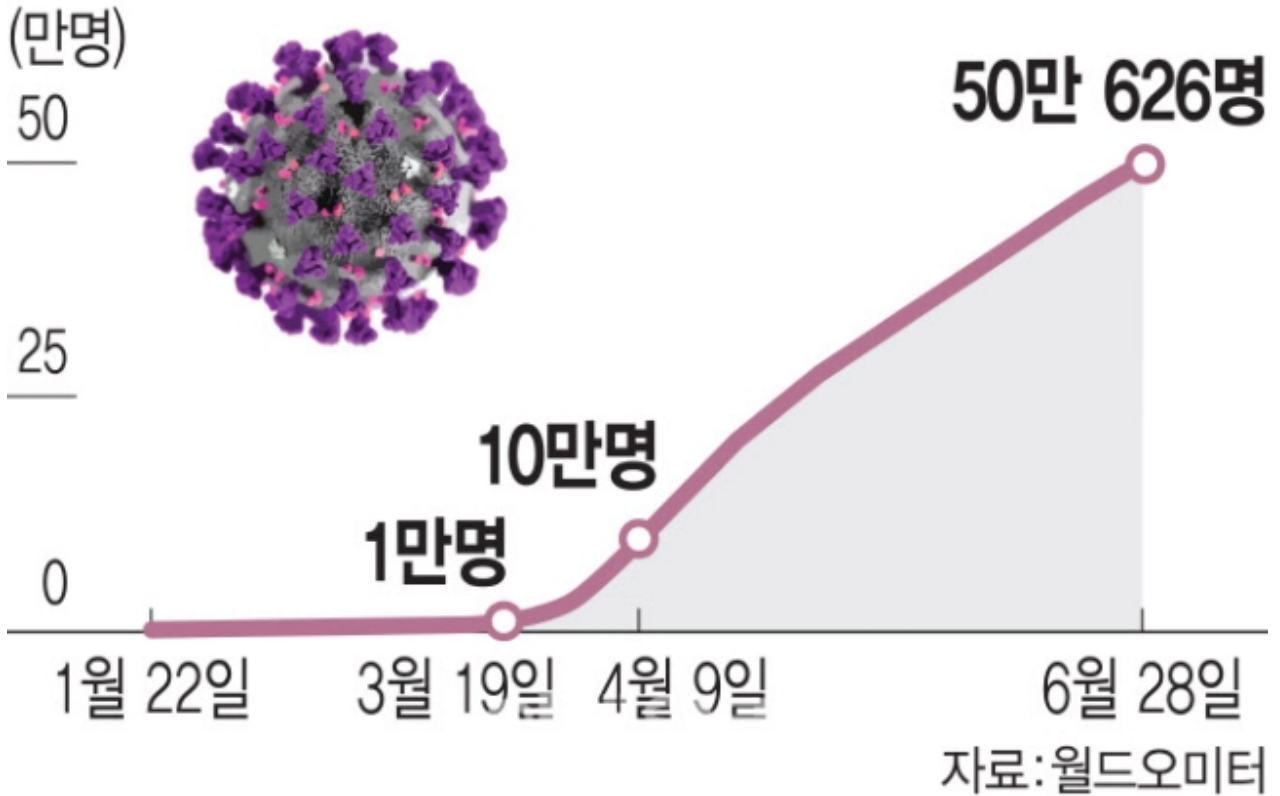
그간 월가가 눈여겨봤던 건 2분기보다 3분기다. 2분기 최저 -50%까지 추락할 수 있지만 3분기에는 최고 40%까지 튀어 오를 수 있다는 V자형 반등 기대가 컸다. 뉴욕 증시가 이례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벌였던 것은 이같은 낙관론 시나리오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희망은 점점 약해지는 기류다. 무엇보다 경제를 다시 열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JP모건은 "레스토랑 예약 건수 증가율과 신규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 신규 확진자는 늘 것"이라고 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수요 이연(pull-forward)으로 2~3분기 때 소비가 늘 수 있다"면서도 "4분기 이후 다시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라인하트의 경고와 맥을 같이 하는 전망이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한국시간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7만5115명이다. 그 중 4분의1 이상인 259만6537명이 미국에서 나왔다. 특히 전날 신규 확진자는 4만3581명으로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사상 최대다. 경제 재개를 서둘렀던 플로리다주(9585명 ↑), 텍사스주(6079명 ↑), 캘리포니아주(4226명 ↑), 애리조나주(3593명 ↑) 등은 하루 사이 수천명씩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술집 문을 다시 닫는 등 경제 재개 보류를 결

정했을 정도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 추이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백신 나오지 않는다면...모든 게 불확실

문제는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코로나19를 잡는 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00여개 코로나19 백신 후보 중 15개 물질을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발생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테스트(3상 시험)하는 미국 모더나 등이 가장 앞선다는 평가다.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 중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발생지의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한 2상 시험과 함께 3상 시험을 지난달 동시에 착수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치며 더 강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첫 백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1000만 명인 감염자가 2000만명, 3000만명으로 계속 늘지, 또 언제 어떤 속도로 증가할지 등은 불확실한 셈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팬데믹 이후에는 (그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사태는 미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재정과 의료가 취약한 중남미와 남아시아의 무서운 확산세는 또다른 걱정거리다. 브라질은 현재 131만5941명으로 미국에 이은 확진자 세계 2위다. 하루 만에 3만5887명 급증했다. 페루(27만5989명)와 칠레(26만7766명)의 경우 각각 7번째, 8번째로 감염자

수가 많은 나라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는 -9.4%다. 인도의 경우 전날 2만131명 증가한 52만9577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에 이은 세계 4위다.



‘코로나 대통령’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열린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증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김정남 (jungkim@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

청춘뉴스~ 스냅타임 ▶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675667>

이데일리

스티글리츠 "세계 경제, 예비 타이어 없는 자동차, 문제 발생시 속수무책"

기사입력 2020-06-26 11:57 최종수정 2020-06-26 12:00

스티글리츠 "코로나로 시장경제 결함 드러나"
"향후 회복력있는 경제 구축..정부 적극대응 중요해져"
"코로나 이전경제로 돌아가선 안돼..국제공조 중요"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상호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모든 국가에서 방역이 제대로 돼야 하고, 각국의 강력한 경제회복이 전제돼야 글로벌 경제회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보건과 환경, 기후 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구명보트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타더라도 같이 노를 저어 안전지대로 가야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국제컨퍼런스 제 1세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날 연설은 사전녹화된 동영상으로 상영됐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가 이전부터 발생했던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세계는 이미 '초세계화'로부터 뒷걸음질치고 있었다"며 "2008년 이후 전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는 모든 국가에서 성장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세계 GDP 대비 교역량은 감소했다. 생산 구조의 성격이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는 이를 가속화시켰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특히 각국 경제의 회복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을 지적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작동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하지 못하는 예비 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회복력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단기 수익을 위해 장기 안정성을 훼손해 온 시장 경제의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몇 분이라도 아끼기 위해 생산역량을 갖추지 않은 채 외부 의존성을 높였고, 그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마스크와 산소호흡기, 개인보호장비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자체 생산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는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하는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앞으로 시장과 정부, 시민사회 간 더욱 균형잡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미국 정부가 과학예산을 30%씩 줄인 탓에 질병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역량이 감소했다면서 과학과 진실에 입각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모든 국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 사태의 예방과 종식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접근가능하고 공유될 수 있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풀을 만들어 전세계 어디서든 접근하고 의약품이 최저가에 공급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일부 백신 보호주의나 부유층에 최우선 접근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합리성과 인도주의에 기반한 국가별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금융부문이 전세계의 코로나 극복을 돕고 지원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번 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이라며 “대공황에서 회복하는 데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코로나 대응이) 통화정책으로는 역부족이며 재정적 솔루션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전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친환경적인 경제, 지식을 토대로 한 경제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공조”라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도 동영상 기조연설로 참석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소홀해졌다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을 불러올 활력이나 정신, 지난 100년간 성장을 이끌어 온 가치를 회복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사진 : AFP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

이데일리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1인당 GDP 4~5년 지나야 회복...V자 반등 어려워"

기사입력 2020-06-26 11:29 최종수정 2020-06-26 11:43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기조연설
"경제지표 반등에도 본격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6년 지나야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가능할 것."

카르멘 라인하트(Carmen Reinhart)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제컨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라인하트 수석부총재는 "본격적인 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 경제수치가 회복되는 모습은 기대할 수 있지만 경제의 탄력적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이어 "고용률, 기업심리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완전한 회복인지 점치는데는 신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비교해 완전한 회복에는 5년이 걸렸고 유럽은 더 오래 걸렸다"며 "4~6년이 지나야 1인당 소득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는 그동안의 전염병과 다르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전면 봉쇄 등으로 경제활동에 전례없는 영향을 미친 전염병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1억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당시에 미국 경제는 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라인하트 수석부총재는 "지금 코로나19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며 "선진국, 개도국 모두 피해를 입고 있고, 원자재 가격 약세와 교역이 큰 타격을 입었던 세계대공황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세계화 관련해서는 "브레튼우즈체제 처럼 전면 자본통제가 이뤄지지 않는겠지만, 개도국과 신흥국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예상하고 초국경자본이동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

청춘뉴스~ 스냅타임 ▶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674335>

이데일리

美 사모펀드 대부 "코로나19 백신 내년 공급될 것... 4Q 美경제 회복"

기사입력 2020-06-26 10:26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2분기 미국 투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전망
미국 정부·의회·연준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
장기불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데이비드 루벤스타인(David Rubenstein) 칼리일그룹 회장 겸 CEO (사진=AFP)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리일그룹 회장이 코로나19로 미국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졌지만 오는 4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이 내년엔 가능할 수도 있다며, 미국경제가 장기불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David Rubenstein) 칼리일그룹 회장 겸 CEO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제컨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미국경제가 지금 누가봐도 경제불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분기 지표는 경제 불황이 얼마나 극심한지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

망했다.

다만 경기순환 측면에서 보면 심각하겠지만 장기불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루벤스타인 회장은 전망했다. 그는 “경기불황은 일반적으로 볼 때 3~4년 회복기간 소요된다. 위기전까지 돌아가려면 이정도는 걸리지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르면 4분기에는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제로금리 기초를 유지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해 미국 재무부, 의회, 연준의 협업은 최근의 협업 중 가장 긴밀했고,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내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그동안 백신 개발은 평균 7년가량 걸렸고, 가장 빨랐던 것도 4년이었다”면서 “코로나 백신개발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어렵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120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인데, 미국은 5개 제약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모든 필요한 역량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백신 공급이 내년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미국 정부가 5개 제약사에 막대한 돈을 써서 지금 백신은 생산에 들어갔다”며 “효과가 입증되면 백신을 풀 수 있고, 올해 중 5곳 중 1곳에서는 효과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내년엔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

청춘뉴스~ 스�냅타임 ▶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674259>

이데일리

은성수 "코로나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만기 재연장 고민"(종합)

기사입력 2020-06-26 09:56 최종수정 2020-06-26 11:10

은성수 금융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컨퍼런스 발언
"당분간 코로나와 공생..안정적 금융시스템 최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축사 겸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 시한이 석 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금융당국은 상황이 악화할 경우 만기 연장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소공동에서 세계경연구원과 하나은행의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와 공생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 4개월간 금융당국이 마련한 자금공급이나 금융규제 완화 등을 안정적

으로 시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대응 정책의 주된 목적은 금융 시장 안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공생시대에 금융위는 실물경제지원 능력을 강화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9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175조원의 정책 자금을 공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를 유연화해 재정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정책을 마련하면서 초반만 해도 코로나가 6개월 정도면 종식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6월 말이 됐다"면서 "(코로나 대출만기 시한이 도래했을 때) 다시 연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3개월 안에 (코로나 사태가) 잘 끝나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9월 30일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되는 9월 이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진 상태다.

은 위원장은 발언 후 기자들을 만나 "당초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을 9월로 할 때, 3달 정도만 연장하면 된다고 했지만 대책을 과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 6개월 연장으로 했다"면서 "만일 9월이 되어서 상황이 더 어렵게 됐는데 우리(금융당국)는 할 만큼 했다고 손을 털 수 있겠느냐.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플랜A는 코로나가 제대로 종식됐을 때, B는 제대로 끝나지 않을 때, C는 현재보다 악화했을 때 등으로 나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이나 증권 등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국제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가 올 것이다. 영원히 돈을 풀 순 없다"면서 "유동성 회수 시기가 되면 국제 공조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각국 리더들이 공조 필요성과 실행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

청춘뉴스~ 스냅타임 ▶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데일리

'코로나19 대출만기 9월'..상황 악화시 만기연장 가능성도

기사입력 2020-06-26 09:50 최종수정 2020-06-26 11:10

은성수 금융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컨퍼런스 발언 "당분간 코로나와 공생..안정적 금융시스템 최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 시한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은 상황이 악화할 경우 만기 연장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소공동에서 세계경연구원과 하나은행의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와 공생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 4개월간 금융당국이 마련한 자금공급이나 금융규제 완화 등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대응 정책의 주된 목적은 금융 시장 안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공생시대에 금융위는 실물경제지원 능력을 강화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9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175조원의 정책 자금을 공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를 유연화해 재정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정책을 마련하면서 초반만 해도 코로나가 6개월 정도면 종식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6월 말이 됐다"면서 "(코로나 대출만기 시한이 도래했을 때) 다시 연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3개월 안에 (코로나 사태가) 잘 끝나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9월 30일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되는 9월 이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진 상태다.

은 위원장은 발언 후 기자들을 만나 "당초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을 9월로 할 때, 3달 정도만 연장

하면 된다고 했지만 대책을 과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 6개월 연장으로 했다"면서 "만일 9월이 되어서 상황이 더 어렵게 됐는데 우리(금융당국)는 할 만큼 했다고 손을 털 수 있겠느냐.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플랜A는 코로나가 제대로 종식됐을 때, B는 제대로 끝나지 않을 때, C는 현재보다 악화했을 때 등으로 나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이나 증권 등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축사 겸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국제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가 올 것이다. 영원히 돈을 풀 순 없다"면서 "유동성 회수 시기가 되면 국제 공조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각국 리더들이 공조 필요성과 실행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

청춘뉴스~ 스냅타임 ▶

<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674224>

이데일리

MSCI 회장 "美·中 갈등, '신냉전'으로 번지지 않는 것"

기사입력 2020-06-25 20:16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25일 개최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 특별 연설 담화 영상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헨리 페르난데즈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회장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신냉전(新冷戰)' 수준으로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MSCI는 세계 최대 증시 관련 산출 기관으로 MSCI 지수는 글로벌펀드 투자기준이 되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다.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영상 내 왼쪽)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영상 내 오른쪽)이 온라인으로 담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유준하 기자)

헨리 MSCI 회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특별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인정하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긴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과거 미소냉전 수준의 신냉전 구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중이 지금처럼 무역분쟁이 아니라 금융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전쟁은 무역의 균형이나 공급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대안과 방안이 있다"며 "하지만 금융전쟁에

는 대안이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헨리 회장은 “자유로운 금융자본의 흐름을 제한하면 그 파급효과가 전세계적으로 충격을 줄 것”이라며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징조가 있지만, 그 수준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홍콩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제 금융중심지로 역할을 이어나갈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의 금융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고 서구의 자본이 필요하다”며 “홍콩이 그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헨리 회장은 “현재 중국이 홍콩을 제대로 장악했다고 믿는 것 같은데, 옳은지 여부를 떠나 개방할 것은 틀림없다”며 “홍콩의 정치와 사회는 후퇴할 수 있지만, 금융 허브 역할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후 자산시장은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가 더 우세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고성장 테크기업 위주로 성장했지만, 봉쇄가 완화되면 경기 순환적 민감주와 방어주, 가치주가 더 우세할 것”이라며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포트폴리오가 코로나19 이후 더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은 국제적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와 세계적 사모펀드인 히스파니미디어(HispaniMedia)의 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998년 이후 MSCI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재임 중이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청춘뉴스~ 스냅타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673977>

코로나 대출 만기 석달 앞으로...은성수 금융위원장 "재연장 고민"

입력 2020-06-26 10:46

코로나 대출 만기 시한 석달 앞으로, 과다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대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축사 겸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 시한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고심이 깊어지고있다. 대출 만기 재연장을 원치 않으면서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한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 주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9월 만기 언급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근 기자 nova@etoday.co.kr

인쇄

닫기



은성수 금융위원장 "위기 때 진짜 실력 드러나...금융의 적극적 실물 기능 강화해야"

2020년 06월 27일 (토) | 조승환 기자 | shcho0505@econonews.co.kr

[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재점검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연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위기 대응 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동력 유지하고 성장의 버팀목이 된다"며 "코로나와의 공생 시대에 금융의 적극적 실물 기능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유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HOME 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9월에도 상황 어려울 수 있어 대비해야" ...대출 만기연장 시사

2020년 06월 27일 (토) | 이정원 기자 | jwwjddnjs@naver.com

[이코노뉴스=이정원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당분간 코로나가 공생하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책을 하면서 코로나가 6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해 자금연장을 6개월로 잡았는데 앞으로 3달 남았다"며 "다시 연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남은 3개월 내에 잘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은 위원장은 행사 이후 기자들을 만나 "당초 대책은 과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6개월 연장으로 했다"며 "9월말에도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원 기자 jwwjddnjs@naver.com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글로벌경제신문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은성수 금융위원장 "과다 유동성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대비할 것"

기사입력:2020-06-26 14:29:19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한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 주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러한 희망을 내비쳤다.

그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9월 만기 언급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

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거에도 금융 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회사들과 핀테크(금융기술)를 앞세운 신생 사업자들 간 갈등 문제도 향후 당국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환경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기존 은행·카드사들은 이미 경쟁이 심한데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불만"이라며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

"코로나 이후 유동성 급증 부작용, 한국형 뉴딜로 극복"

기사입력 2020.06.26 15:06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지출 등으로 유동성이 급증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한국형 뉴딜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IGE)과 하나은행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강연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금융위기 이후 기존 양적 완화와 저금리, 부채증가 등의 부작용이 남아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재앙이 닥치면서 신속 과감한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부채, 자산가치 상승, 부실기업으로의 유동성 공급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작용 극복 방안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된 한국형 뉴딜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 "단기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사회 구조의 국가 대전환"이라면서 "재정지출과 생산성 증대 타겟팅으로 유동성 급증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ews.com

<저작권자 © 글로벌이코노믹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원문 URL : http://www.g-eneews.com/view.php?ud=202006261504513750a218188523_1

SNS원문 URL : http://www.g-eneews.com/view.php?ud=202006261504513750a218188523_1

프린트하기

은성수, 대출 만기 연장 시사... "9월 상황 어려울 수 있어 대비해야"

은성수 기자 | 승인 2020.06.26 14:50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외뉴스통신]은성수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만기연장 시한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당분간 코로나가 공생하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지난 4개월간 자금공급, 금융규제 유연화 등 각종 위기대응을 위해 마련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데 전력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 공생 시대에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 기능 강화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책을 하면서 코로나가 6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해 자금연장을 6개월로 잡았는데 앞으로 3달 남았다"며 "다시 연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남은 3개월 내에 잘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은 상환방식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당초 대책은 과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6개월 연장으로 했다"며 "9월말에도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성주 기자

데일리안
YOU IS THE NEWS

은성수 "9월에 대출 만기 재연장하자는 얘기 안 나 오길"

기사입력 2020-06-26 15:42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NextRise2020,Seoul)' 개최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코로나 금융지원'과 관련해 "9월이 되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는데 할 만큼 했다고 (정책 연장을) 안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향후 코로나19 후폭풍이 진정되지 않으면 대출·보증 만기 재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연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과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정책을 만들면서 코로나 위기를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했는데, 이미 6월 말이 됐다"며 "다시 연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3개월 내 잘 끝나 사태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119&aid=0002410837>

금융위원장 "9월에 대출 만기 재연장 얘기 안 하게 되길"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입력 : 2020-06-26 [13:28:39] 수정 : 2020-06-26 [13:28:39] 게재 : 2020-06-26 [13:28:55]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한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 주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희망을 내비쳤다.

그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9월 만기 언급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회사들과 핀테크(금융기술)를 앞세운 신생 사업자들 간 갈등 문제도 향후 당국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환경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기존 은행·카드사들은 이미 경쟁이 심한데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불만"이라며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금융·증권

BUSINESS POST

은성수 "코로나19 위기를 금융시스템 재점검의 기회로 만들겠다"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 입력 : 2020-06-26 11:22:24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이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지금의 상황을 전반적 금융시스템의 재점검 기회로 만들겠다"며 "위기 과정에 드러난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점검하고 이에 관한 제도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과거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당시 일부 업권에서 유동성 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당분간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질 수 있어 위기 대응정책 실행에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시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19와 공생하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지난 4개월 동안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금의 공급, 금융규제 유연화 등 각종 위기 대응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해 디지털 뉴딜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마주칠 많은 도전과제를 앞두고 데이터경제의 활성화 등을 통한 디지털뉴딜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금융당국은 낡은 금융규제의 개선,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 등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금융규율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상의 변화가 기술과 플랫폼의 등장,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만남으로 진화하던 4차산업혁명에 새로운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며 "온라인학습, 재택근무, 디지털 금융 등 디지털을 매개로 글로벌 산업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금융회사들과 핀테크를 앞세운 신생 사업자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뉴스>

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환경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기존 은행·카드사들은 이미 경쟁이 심한데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불만"이라며 "이해관계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기사프린트  창닫기

서울신문

노벨상 석학 스티글리츠 “세계경제는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

입력 : 2020-06-26 14:03 | 수정 : 2020-06-26 14:03

“위기 회복력 없다는 것 드러내”
 “장기투자에 힘실리는 등 안목 바뀔 것”
 세계銀 부총재 “탄탄한 금융망 회복 회의적
 저성장 심화 땀 고립주의와 보화무역주의 늘어”



▲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77)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코로나19로 우리가 만든 경제가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다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평상시에는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위기 대처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직접 방한하지 못하고, 영상 녹화본을 통해 기조연설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보다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 투자자의 목소리에 힘을 더 실어주는 등 단기수익보다 장기 안목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어 “각국은 이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공동으로 협력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특히 코로나19 종식과 예방을 위해서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기에 백신 관련 특허 풀을 만드는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가져올 경기 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이다. 우리는 대공황에서 회복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대공황 당시에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못 했지만 이번에는 공조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문제임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자본 흐름이 거의 붕괴했고 교역량도 큰 폭으로 위축돼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이전 수준의 탄탄한 교역과 금융 네트워크가 회복될지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라인하트 부총재는 "현재 각국 중앙은행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1인당 소득은 대단히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이 실직 등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영세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문제가 나타났을 때 많은 국가가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보호무역주의가 늘었다"며 "지금처럼 세계 1·2위 경제 국가가 갈등하는 상태에서는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펠프스 교수는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돌아보는 데 소홀해졌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아직도 앞으로 10년, 2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 추정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펠프스 교수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활력을 잃었고 혁신도 큰 타격을 받았다"며 "자기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면 국가 붕괴나 사회 소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아이뉴스24

세계 석학들의 경고 "코로나 사태로 각국 부채 수준 매우 심각"

기사입력 2020-06-26 17:18

"코로나 방역과 백신에 경제 달려있어"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주요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돈을 대규모로 풀 나머지, 부채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부채 과잉'을 어떻게 풀어야할지도 고민할 때라는 것이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다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컨퍼런스가 열렸다.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했으며, 세계은행, 국제금융협회, 파이낸셜타임스, 하나은행이 공동주최사로 참여했다.



[사진=뉴시스]

컨퍼런스에 참여한 연사들은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

정 정책을 편 결과, 부채 비중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제금융시스템 및 금융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세션의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팀 아담스 국제금융협회 총재는 "각국의 부채 수준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정점에 올라와 있었는데, 바이러스 확산 이후 다시 급증하면서 그간 관찰되지 않았던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라며 "특히 미국의 경우 1940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부터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신속한 재정부양책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는 코로나19 이후 '부채 과잉'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소니아 기브스 국제금융협회 매니징 디렉터도 "이전부터도 각 국가의 부채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전세계 부채 총량이 GDP의 320%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각 국가의 부채 취약성이 더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공공 또는 민간으로의 자금 조달이 앞으로는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금융부문이 코로나19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채 과잉 등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은행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팀 아담스 국제금융협회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유동성을 높이고 레버리지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 덕에, 지금은 금융부문이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업 전체가 지불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항공산업, 호텔, 여행, 레저 등은 영구적인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라며 "은행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고, 유동성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만 한다"라고 조언했다.

저성장·저금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저성장과 저금리 고착화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었으나, 바이러스 확산이 아예 이러한 추세를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다.

마이클 테일러 무디스 상무이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강국들의 성장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결과물로 저금리 기조는 이전 전망보다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두 가지 기조의 장기화는 금융산업에 치명적이다.

장기적인 성장을 약화하는 과잉 부채를 야기하는 만큼, 채무상환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자를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다.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악재로 작용한다. 저금리 장기화는 은행의 이자이익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마이클 테일러 상무이사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더 많은 좀비기업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채무자의 신용도가 낮아지는 만큼, 은행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날 연사들은 과잉부채, 금융권 리스크 심화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개발을 들었다.

앤 크루거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마련되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나 방역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완전히 잡혔고, 이제 경제활동을 재개해도 된다'는 심리가 널리 퍼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봉쇄령을 조기에 해제했고, 확진자의 동선 추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며 "이럴 경우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크루거 전 총재는 또 "지금도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회복 모멘텀을 창출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백신이 개발되면 시민들의 소비 심리는 매우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비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면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는데, 각국의 통화당국들은 이

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SG 투자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 결정 시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니아 기브스 국제금융협회 매니징 디렉터는 "코로나19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라며 "코로나19는 기후는 물론이고 부실한 의료시스템, 재정정책 효과 등 ESG와 연관된 문제였던 만큼, 향후 각국의 규제는 생태계 복원,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테일러 무디스 상무이사도 "코로나19 이후 다자 이해관계자주의가 강화되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투자 시 ESG를 중요시하게 될 것"이라며 "다수의 기업들이 ESG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해나갈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31&aid=0000544861>

은성수 "대출·보증 만기 9월에 재연장 얘기 안 나오길"

기사입력 2020.06.26 11:38:58 | 최종수정 2020.06.26 11:38:58 | 송두리 기자 | dsk@ekn.kr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대출·보증 만기를 9월에 다시 한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다"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연설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는 없다"며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 풍부한 유동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송두리 기자 (dsk@ekn.kr)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

창닫기

은성수 "9월에 대출만기 재연장 얘기 나오지 않길"

✎ 김기울 기자 | ⓒ 승인 2020.06.26 15:37

| "9월 상황 어려울 수도...다양한 계획으로 미리 대비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기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상황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9월에 만기를 다시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도 시행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은 위원장은 "지금은 지난 4개월간 자금공급, 금융규제 유연화 등 각종 위기대응을 위해 마련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데 전력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 공생 시대에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 기능 강화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대책을 과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6개월 연장으로 했다"며 "9월말에도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랜 A는 코로나가 제대로 끝났을 때, 플랜 B는 제대로 끝나지 않을 때, 플랜 C는 현재보다 악화됐을 때 등으로 나눠 어떻게 대비할지 준비하고 미리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며 "특별히 (정책을) 계획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울 기자 hkps099@gmail.com

저작권자 © 인터넷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성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9월에서 더 연장할지 고민”

윤 이상헌기자 | 승인 2020.06.26 13:58

플랜 A, B, C로 나눠 검토 중...은행들도 미리 준비하길 바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축사 겸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9월 30일까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을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플랜A는 코로나가 제대로 종식됐을 때, B는 제대로 끝나지 않을 때, C는 현재보다 악화했을 때 등으로 나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 등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 위원장은 과잉 유동성도 경고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등의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환경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기존 은행·카드사는 이미 경쟁이 심한데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헌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 위기,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회로 만들 것"

낮은 금융규제 개선·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에 주력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등록 2020.06.26 10:44:33



▲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 위기를 금융시스템 재점검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당분간 코로나와 공생하는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4개월 간 마련된 위기 대응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력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대응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안정이 주된 목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성장궤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며 "코로나와 공생하는 시대에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최선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디지털 뉴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학습, 재택근무, 디지털 금융 등 디지털을 매개로 글로벌 산업 지도가 바뀌고 있다"면서도 "기술발전과 경영혁신이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가 양산된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라는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예언은 귀담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감소로 발생할 소득 양극화와 유동성 공급정책의 결과로 인한 자산의 양극화, 경제적 능력 차이로 인한 보건의 양극화 등 코로나로 촉발된 각종 불평등 심화 현상은 정책당국자들에게 깊은 고민거리를 안겨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많은 도전과제를 앞두고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등을 통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금융당국은 낡은 금융규제의 개선,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 등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금융규율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성수 "9월 대출 만기 재연장 없길...리스크 대비할 것"

윤 이연경 기자 | 승인 2020.06.26 10:57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한 번 더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 주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난다면 '해피엔딩'"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며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금융회사들과 핀테크(금융기술)를 앞세운 신생 사업자들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환경 변화를 유도하려고 한다"며 "다만 기존 은행·카드사들은 이미 경쟁이 심한 가운데 새 플레이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연경 기자

은성수 "9월 대출·보증 만기 재연장 안하게 되길"

기사입력 2020.06.26 11:06:26 | 최종수정 2020.06.26 11:06:26 | 조계원 | Chokw@kukinews.com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한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 주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좋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지원하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되는 9월 이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는 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길어져 9월이 되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당국이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 없다”며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랜A는 코로나가 제대로 종식됐을 때, B는 제대로 끝나지 않을 때, C는 현재보다 악화했을 때 등으로 나눠 고민하고 있다”며 “은행이나 증권사 등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며 금융시장에 공급한 유동성의 정상화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계원 (Chokw@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안효준 국민연금 CIO “ESG에 초점 맞춘 투자 강화”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기사입력:2020-06-26 18:00:19



▲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CIO).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26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CIO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연 국제 컨퍼런스에서 “ESG 종목은 하방압력에 대한 회복력이 좋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반드시 ESG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위기대응 특별 태스크포스(TF)을 가동해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3월에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산가격이 급락하자 총 네 차례에 걸쳐 자금 운용계획을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라 향후 해외자산과 국내자산 비중을 50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안 CIO는 “기금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해외자산과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며 “해외자산과 국내자산 배분 비중을 현재 35대 65에서 오는 2024년까지 50대 50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CIO는 “전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채권금리를 제로 또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트려 채권 기대수익률이 하락했다”며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투자 관점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저작권자 © F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



은성수 "코로나 공생 시대 금융시스템 안정 최선"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사입력:2020-06-26 11:36:29



은성수 금융위원장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재점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일반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를 염두하고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19와 공생하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지난 4개월간 위기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금공급, 금융규제 유연화 등 각종 대응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정책을 만들면서 코로나 위기를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했는데 이미 6월 말이 됐다"며 "다시 연장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9월까지) 3개월 안에 잘 끝

나 사태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와의 공생 시대에 금융의 적극적 실물 기능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유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재점검하고 제도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당시 수익성을 쫓아 과도한 쓸림현상 있었던 일부 업권에서 유동성 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며 "유동성을 정상화 할 때가 올텐데 미리 금융안정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코로나 위기 속 국제공조가 미흡한 것을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기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대공황 당시에는 국제공조 부족으로 위기가 확대된 것과 달리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활발한 공조로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며 "코로나19 위기에 국제공조 목소리가 크지 않고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쉬운 측면으로 조만간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저작권자 © F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

코로나 대출 만기 눈앞에...은성수 금융위원장 "재연장 고민"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26 13:24

"코로나와 공생 불가피...안정적 금융시스템 최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축사 겸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한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에서 세계경연구원과 하나은행의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와 공생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 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9월 30일까지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도록 한 바 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회사들과 핀테크(금융기술)를 앞세운 신생 사업자들 간 갈등 문제도 향후 당국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환경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기존 은행·카드사들은 이미 경쟁이 심한데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불만"이라며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하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9월에 대출 만기 재연장 얘기 안 하게 되길"

유길연 기자 gilyeonyoo@fetv.co.kr

등록 2020.06.26 14:23:08 수정 2020.06.26 14:23:08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ETV=유길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한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26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라는 주제의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거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회사들과 핀테크(금융기술)를 앞세운 신생 사업자들 간 갈등 문제도 향후 당국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라고 은 위원장은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새 플레이어(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환경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지만, 기존 은행, 카드사들은 이미 경쟁이 심한데 플레이어 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불만"이라며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로운 정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UPI뉴스

UPI뉴스 > 경제

스티글리츠 "세계 경제,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같아"

☞양동훈 / 기사승인 : 2020-06-26 15:31:06

**"문제 발생시 회복 능력 없다는 것 코로나19로 드러나"
"이번 불황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세계적 공조 필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는 세계 경제가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뉴시스]

스티글리츠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는 우리가 만든 세계 경제가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작동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보다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안목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세계 각국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코로나19 종식과 예방을 위해 백신 관련 특허 풀을 만드는 등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번 경기 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이라며 "대공황에서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공황 당시에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의 공조가 필요한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자본 흐름이 거의 붕괴했고 교역량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예전 수준의 교역과 금융 네트워크가 회복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라인하트 부총재는 "각국 중앙은행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1인당 소득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저소득 노동자들이 실직 등의 피해를 보고 있고, 영세기업의 자금 조달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저성장과 불평등 문제가 심화할 때 많은 국가가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인다"며 "지금처럼 세계 1·2위 국가가 갈등하는 상태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여파로 녹화와 온라인 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U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upinews.kr

[저작권 © UPI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upinews.kr>]

UPI뉴스

UPI뉴스 > 경제

금융위원장 "대출 만기 연장, 9월 이후 고민해야"

☞양동훈 / 기사승인 : 2020-06-26 14:45:52

"코로나 상황 길어지면 손 털고 나올 수 없어"
"9월에 대출 만기 재연장 얘기 안하게 되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 말까지로 예정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병혁 기자]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

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9월 말까지 6개월 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에 만기를 다시 한 번 연장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갑자기 손 털고 나올 수가 없다"며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시장 참가자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간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 기간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은 안정성과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거에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쫓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U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upinews.kr

[저작권자 © UPI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upinews.kr>]